

Haus of Matter

월드 하우스 오브 매터스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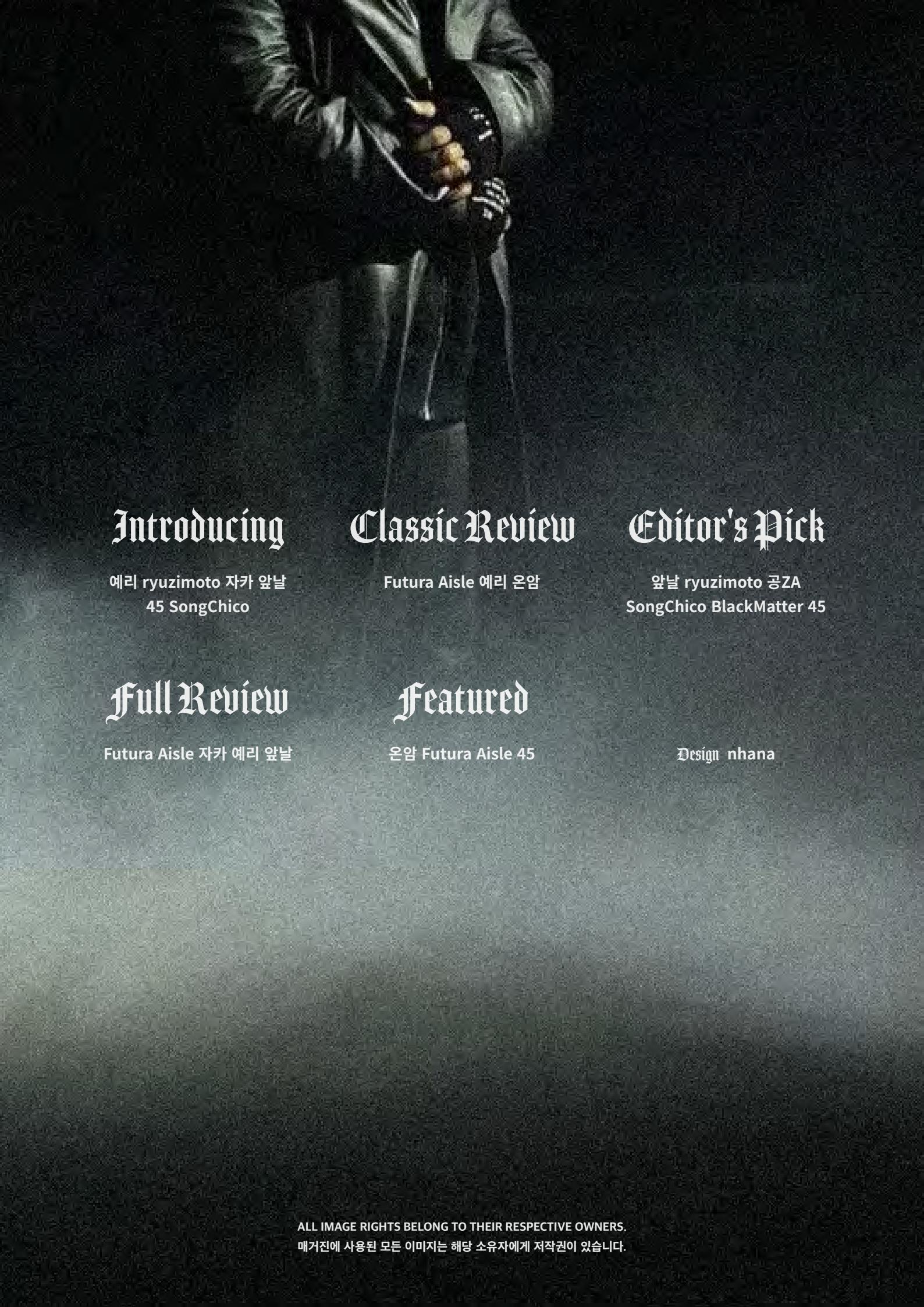
vol 8



Haus of Matter

MARCH
vol 8

월 드 하우스 오브 매터스



Introducing

예리 ryuzimoto 자카 앞날
45 SongChico

Classic Review

Futura Aisle 예리 온암

Editor's Pick

앞날 ryuzimoto 공ZA
SongChico BlackMatter 45

Full Review

Futura Aisle 자카 예리 앞날

Featured

온암 Futura Aisle 45

Design nhana

Introducing

INTRODUCING



the First Fist to Make Contact When We Dap

R.A.P. Ferreira & Fumitake Tamura

TRACK 1. humble vessel / 2. 47 rockets taped to my chair (for dr. refaat alareer) / 3. hereing color, green / 4. culture war patriots (feat. Self Jupiter) / 5. mr. susan type slapper (feat. ELDON) / 6. medicinal hymnal #77 / 7. Jes' Grew in Osaka / 8. begonias (feat. HPrizm) / 9. elite mind flayer judo / 10. bending corners (sittin sidewayz revisited) / 11. the words of the poem (feat. ShaRay) / 12. soulfolks signal

DATE 2024.01.26

EDITOR 예리

R.A.P. Ferreira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큰 기복이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준수한 수준의 작품들이 나열된다. 리스너와 아티스트 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본작 <the First Fist to Make Contact When We Dap> 역시 상호 합의된 불문율을 따르는 작품이다. 준수라는 표현이 앨범의 평이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더할 나위 없이 충실했던 앱스트랙트 사운드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앱스트랙트의 단어 의미가 그렇듯, 장르의 규율에 일치한 결과는 추상의 극대화이자 지향점의 방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앨범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임팩트를 내뿜었는가? 혹은 참신한 실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는가? Fumitake Tamura와의 협업이 이끌어 내는 장르 융합, 사운드 콜라주 흔적이 종종 드러나곤 하지만 재즈와 앰비언트 성향을 밑배경으로 한 그의 기법에서 감탄스러울만큼 혁신적이거나 매력적인 이끌림이 와닿진 않는다. 그간 MIKE, billy woods, Earl Sweatshirts 등이 다양한 선례들을 남겼기에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앨범의 품질이 아쉽지는 않다. 본작이 그저 R.A.P. Ferreira의 신보 혹은 새로운 협작으로 남을, 그의 작품으로선 다소 빛밋하게 느껴질 선외가작으로 느껴질 뿐이다.



Everybody Can't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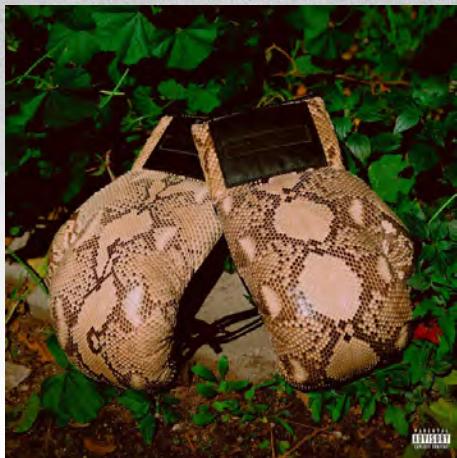
Benny The Butcher

TRACK 1. humble vessel / 2. 47 rockets taped to my chair (for dr. refaat alareer) / 3. hereing color, green / 4. culture war patriots (feat. Self Jupiter) / 5. mr. susan type slapper (feat. ELDON) / 6. medicinal hymnal #77 / 7. Jes' Grew in Osaka / 8. begonias (feat. HPrizm) / 9. elite mind flayer judo / 10. bending corners (sittin sidewayz revisited) / 11. the words of the poem (feat. ShaRay) / 12. soulfolks signal

DATE 2024.01.26

EDITOR ryuzimoto

이제는 꽤나 잔뼈가 굵은 래퍼 베니 더 부처(Benny The Butcher)는 독자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그리젤다의 멤버로서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메이저 레이블인 Def Jam Records의 이름을 달고 그려낸 <Everybody Can't Go>를 본인의 갤러리에 추가했다. 통상 4번째 정규 앨범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같은 변화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오히려 오리지널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다. 마피오소적인 퍼포먼스는 여전하며,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Hit-Boy와 The Alchemist도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준다. 지난 앨범들을 통해 우러낸 그만의 정체성은 "Griselda Express"에 담아내었고, 동시에 조금 더 많은 타깃들을 겨냥한 시도 역시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은은한 칩멍크의 향취와 서정적인 보컬 코러스가 귀를 사로잡는 "Everybody Can't Go" 같은 트랙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또한 Jadakiss, Snoop Dogg, Lil Wayne과의 협업에서도 밀리지 않고 놀라운 융화를 자아낸다. 마치 거장과 신예의 사이에서 당차게 Middle Child를 외치던 J. Cole의 면모가 떠오르지만 색다르게 아른거리는 듯 하다. 이제는 어떤 회사의 이름을 달고 발매했는지는 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베니 더 부처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본인을 투영해 내고 있으니까.



THEODORE & ANDRE

Hit-Boy & The Alchemist

TRACK 1. Morrissey / 2. The Main Event / 3. Don't Be Gone

DATE 2024.02.01

EDITOR 자카

그 누구보다 뜨거운 2023년을 보냈던 프로듀서 둘이 다시 한 번 뭉쳤다. 힙보이(Hit-Boy)와 더 알케미스트(The Alchemist). 둘은 서로의 비트 위에서 각자의 벌스를 내뱉으며 자유로움과 근사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멋을 뽐낸다. 3곡, 정확히는 9분이라는 짧은 분량을 가진 EP임에도 불구하고 힙보이와 더 알케미스트의 어김없이 훌륭한 프로듀싱과 랩 퍼포먼스는 듣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현 힙합씬에서 가장 꾸준하게 작업물을 내놓고 있음에도 그 작품성까지 항상 출중한 힙보이와 더 알케미스트는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라 칭송 받아 마땅하다. 힙보이와 더 알케미스트, 최고의 프로듀서 둘은 <THEODORE & ANDRE>라는 준수한 작품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는 과연 두 프로듀서가 어떤 이들과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크나큰 기대를 품게 만든다. 둘은 2024년 한 해를 넘어, 계속해서 힙합씬에 열기를 불어넣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hella (>) ♡ ✧ ♥ -°. °)
1999 WRITE THE FUTURE

TRACK 1. avOcadO SHakE~~E~~ `` x `` 3o~~z~~ / 2. S P I K Y B O i z / 3.
LiGHT rAiLs *☆☆° / 4. yes LOvELy / 5. L'EggO MY EGO / 6. thanksgiv-
in / 7. COuGhDrOPs (,,ঁ,ঁ,,) / 8. i KnOW itS LatE... ❤(ৱ~•,,)❤
/ 9. cOoL WATEr foR thE nIGHT / 10. MiNt chOCoLaTe / 11.
JoEys song ↗ ↘ ↙ ↚ ↛ / 12. BiG IsLaND jazz hOUR / 13. LONG in the
tOOth / 14. PrAiEs nlgHt BluES InteRLUde / 15. PLAYSTATION 2 / 16.
a LEAp in tIME / 17. rUN tHE FaDE / 18. StEAKFACe** ☮(→,↔,) ☮
/ 19. SLOPES / 20. ❤ StiCKy piCtURe SyNdRoMe ৱ.ৱ.ৱ.ৱ. ❤ / 21.
WOWoW! ☺ (❀,❀) / 22. silence STArEs me down / 23. VOoDOo BoOgie
/ 24. siGiL aNd the MaZE *: *:

DATE 2024.02.09

EDITOR 앞날

1999 WRITE THE FUTURE, 88rising에서 시작한, 이 정체 모를 프로젝트 <hella (hellafuck)♦♥°°>는 90년대의 노스텔지아를 그려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아시아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펼쳐놓기도 한다. 블랙벨트, 트랩을 가리지 않는 힙합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 90년대의 향취가 짙게 밴 R&B나 최근 유행 기조의 배드룸 팝 또한 등장한다. 게다가 여러 다양한 장르와 수많은 아티스트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것은 재즈의 선율이니, 이 역시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만약 이 앨범을 수식하는 가장 좋은 날말을 찾는다면 '다양성'에 있겠다. De La Soul, Ghostface Killah, Souls of Mischief, Deltron 3030 등의 90년대 힙합의 거목들과 Smino, Amaarae, Warren Hue, Rich Brian과 같은 성별, 인종을 가리지 않는 아티스트들의 협연은 쉬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심지어 한국의 아티스트 윤미래와 타이거 JK가 함께한 트랙 역시 존재한다. 이들의 하모니는 어떠한 새로운 탐구에 가깝기보다는 흥겨운 무도회장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말이다.



TYO 808

MadeinTYO

TRACK 1. Nothing Better Than (TRUE) / 2. aintno / 3. Harajuku / 4. Where Are You Now / 5. Hold That With Your Heart / 6. Real One / 7. New Girl / 8. Fastforward / 9. Loner / 10. All Summer / 11. Trim Express (Unreleased) / 12. Thug Club (Unreleased) / 13. Glidin (Unreleased) / 14. Took On Faith (Unreleased) / 15. Kanagawa Trips / 16. I'd Be Lying (Unreleased) / 17. Not Ready / 18. Save Yours

DATE 2024.02.09

EDITOR 자카

메이드인도쿄(MadeinTYO)의 <TYO 808>은 그가 처음으로 발매한 인디펜던트 레코드이다. 앨범의 커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TYO 808>은 그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한 환경에서 자신의 모든 창의력과 기량을 쏟아부은 앨범임을 알 수 있다. 클라우드 랩이나 플러그 장르로 대표되던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재즈 랩을 기반으로 한 <TYO 808>은 꽤나 이질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과거에 갇혀있다는 인상을 줬던 그의 전작들에 비해 <TYO 808>은 상당히 훌륭한 발전을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출생지 도쿄에 대한 애정,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트랙들을 메이드인도쿄는 준수한 808 사운드로 완성해 나간다. 그는 이번 앨범으로 크나큰 진보를 이루어내며, 앞으로의 커리어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Pain & Lov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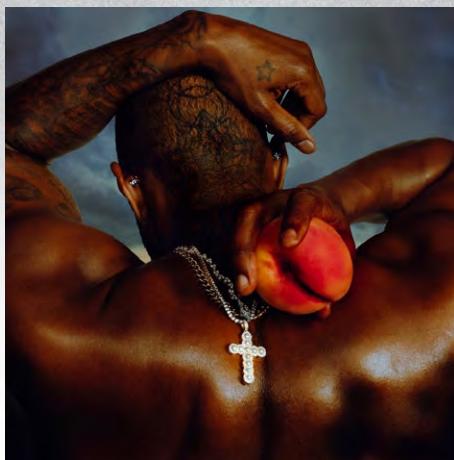
Fivio Foreign

TRACK 1. Who Knew / 2. No Love Lost / 3. Trauma / 4. Could It Be / 5. Same 24 / 6. Get Deadly / 7. Waiting / 8. The Best / 9. Pain Pressure / 10. Clutch

DATE 2024.02.09

EDITOR 45

시카고에서 시작한 드릴은 영국으로 뻗어나가 UK드릴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 새롭게 변한 Drill은 한 명의 유망주로 인해 본토로 역수입된다. NY Drill의 아버지인 Pop Smoke는 Drill을 기준 ATL 트랩에 대항할 차세대 장르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불과 얼마전까지 트렌드로써 자리매김했던 드릴 장르의 대표격 뮤지션인 파비오 포린 (Fivio Foreign)이 새 앨범 "Pain & Love 2"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는 "드릴이 왜 이렇게 빨리 식었나"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3년 전과 다름없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비트, 똑같은 주제, 앨범의 전개 방식 등 2020년 Pop Smoke가 트렌드로 올려놓은 NY Drill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한 것이 없는 음악을 들려준다. 약간의 다른 점이라면 저지클럽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이미저 2022년 유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음악은 여전히 발전 없는 제자리걸음을 보여준다는 셈이다. 피쳐링이 들어간 대부분 트랙들조차 싱잉에 특화된 트랩퍼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모은 싱잉 래퍼들로 곡의 중간 부분에 페인 트랩적인 요소를 넣는 것 또한 3년 동안 바뀐 게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요 트랩퍼들 이름 사이에 끼던 파비오 포린이 "이정도 밖에 보여줄 수 없나?"라고 생각하게 된, 많이 아쉬운 앨범이다. 드릴이 2021년보다는 대중들에게 멀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언더씬에서 드릴의 발전을 위해 여러 음악적 실험이 있는 만큼, 파비오 포린도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Coming Home

Usher

TRACK 1. Coming Home / 2. Good Good / 3. A-Town Girl / 4. Cold Blooded / 5. Kissing Strangers / 6. Keep On Dancin' / 7. Risk It All / 8. Bop / 9. Stone Kold Freak / 10. Ruin / 11. BIG / 12. On the Side / 13. I Am the Party / 14. I Love U / 15. Please U / 16. Luckiest Man / 17. Margiela / 18. Room in a Room / 19. One of Them Ones / 20. Standing Next to You (USHER Remix) / 21. Naked

DATE 2024.02.14

EDITOR 자카

2024년 Super Bowl Halftime Show의 주인공이 된 어셔(Usher)는 이를 맞아 새로운 앨범 <COMING HOME>을 발매하였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건히 자신의 왕좌를 지켜온 어셔는 이번 앨범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달콤한 보컬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이 왜 파티 음악의 황제인지를 당당히 증명해낸다. <COMING HOME>은 R&B, 팝, 힙합, 댄스, 아프로비트 등 넓은 폭의 장르를 다룬는데, 이 또한 그가 여전히 건재하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이다. 하지만 어셔 본인이 앨범을 '자신의 음악적 유산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앨범은 별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파티 음악이란 파티 음악을 얹지로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느낌을 주어 앨범 전체를 듣자기엔 부담스럽고 거부감 또한 드는 것이 사실이다. 20곡에 1시간이 넘어가는 앨범의 큰 불륨은 청자들이 앨범에 몰입하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캐치하기 어렵게 한다. 분명 어셔 본인의 장점이 모두 들어간 앨범이지만 그 결과물은 마냥 조화롭지만은 못했고, 되려 매력을 해치게 되었다. 분명 과거의 영광에 비견될만한 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21세기 최고의 팝스타의 부활을 알리는 앨범이 될지도 모르기에, 본작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Magic as Usual

ICYTWAT

TRACK 1. Ion Kno / 2. Call tha Troopz / 3. CANT LIE / 4. DIFFERENT PERSON / 5. Ilybutnomore / 6. Relapsed / 7. Half Ticket Ona Couch

DATE 2024.02.16

EDITOR SongChico

THOTO와 함께 듀오 THOTTWAT을 결성하며 A\$AP Rocky의 AWGE와의 계약을 따낸 ICYTWAT은 <DON'T BE DUMB>에 참여할 AWGE의 비밀병기로 활약하기 이전에 사운드클라우드 에라의 후반기를 빛낸 프로듀서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THOTTWAT의 명의로는 세 장의 싱글만을 선보였지만, 개인 앨범으로는 3년 동안 정규 2장에 EP 8장, 총 10장에 달하는 결과물을 발표하며 다작을 이어나가고 있다. 본작은 클라우드 랩, 플러그와 같은 몽환적인 감성을 가진 장르에 카우벨과 거친 질감의 드럼을 사용해 멤피스 랩의 향취를 더한 형태로 전작 <Final Boss>와 비슷한 인상을 선사한다. ICYTWAT의 랩 퍼포먼스는 비트와 어울리는 무언가를 뱉는 수준에 가깝지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장르를 동시에 섞어낸 노련한 프로듀싱이 아쉬움을 가리는 데 성공한 인상이다. 7 트랙, 15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도 ICYTWAT의 개성을 충분히 잘 드러났다. 이러한 ICYTWAT의 음악이 가진 개성이 차후에 발매될 THOTTWAT의 앨범에서, A\$AP Rocky의 <DON'T BE DUMB>에서, 이후에 나오게 될 그의 개인 앨범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더욱 궁금케 하는 순간이었다.

Full Review

FULL REVIEW

VULTURES 1
¥\$

Drop 7
Little Simz

All Is Yellow

Lyrical Lemonade

Year 2093
Is 500

QUADECA
SCRAPYARD

Full Review

VULTURES 1

by FUTURA AISLE

¥ \$

복잡미묘하다. 앨범의 완성도가 어떻게 음악적 성취가 어렵다며 아티스트의 성패를 재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음악의 근원적 맹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애매하고 혼란스런 벽들을 허물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소위 뉴 칸예(New Kanye)라 불리우는 후기 칸예의 크로 놀러지에서 세인은 언제나 일련의 아수라판들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음악이 아이디어의 변경에서 플레이어의 손을 거쳐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그랬고, 공개되고 난 뒤에 펼쳐진 음악이 질이 그려했다. 그러나 2020년대 초입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일대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란'의 정점이 <Donda>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Vultures>의 시대가 나타나 세인이 기존의 칸예 웨스트(Kanye West)에 관해 가지고 있던 단상을 송두리째 뒤집어놓는다. <Donda 2>의 스템플레이어가 발매된 직후부터 <Vultures>의 Volume 1이 발표되기까지, 대중은 '칸예 웨스트'라는 인물의 자아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지 사유할 수 있었고— 어떻게 재정립되는지에 관해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Vultures>에 관한 최초의 착상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었을 것이다. 칸예는 <Vultures>의 시대를 암암리에 예고하는 동안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증오를 받아왔으며, 연이은 계약 해지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것은 과연 이 앨범에 칸예 개인적 요소의 암이 얼마만큼 드리우고 있느냐는 것이다. 엄청난 음악적 호전성과 혁신에 가려 종종 잊히곤 하지만, 그는 커리어 핵심부에 걸쳐 '개인사적 방점'을 빽빽히 수록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의 음악을 신봉하는 이들은 더욱 기대를 지우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한때 칸예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헤이팅을 전설적 자기파괴 예술로써 되돌려준 바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한 번, 그 혜성같은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로 세상을 전율시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겐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공개된 <Vultures 1>는 칸예를 아직 '슈퍼히어로' 쯤으로 보고 있는 바보들에게 싸늘한 조소를 지어 보이는 앨범이다. 간단한 수사로 정리하자면, 복잡미묘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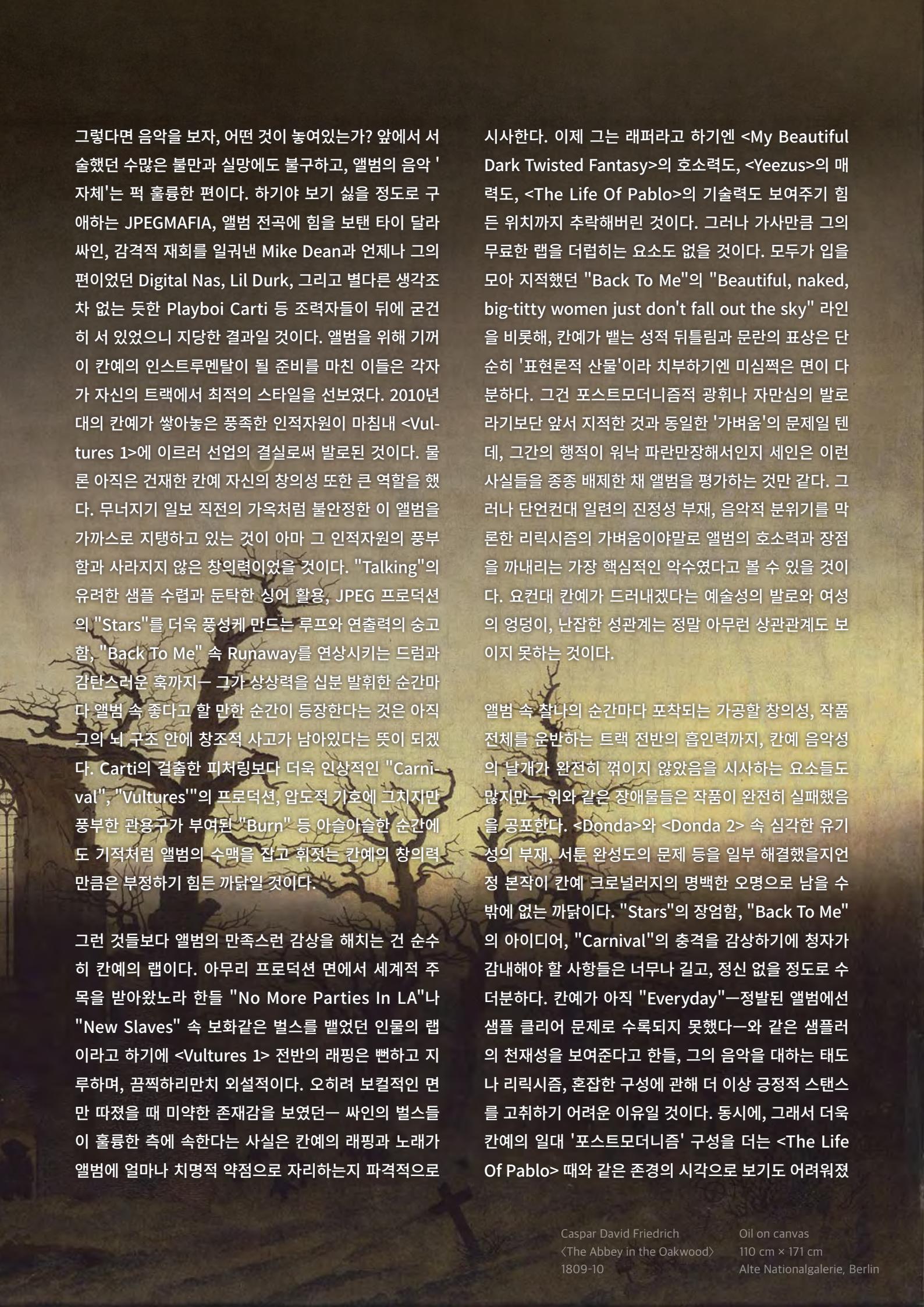
이 글에서 <Vultures 1>에 대한 세인의 감상이 그의 이전 디스코그래피에 비해 월등히 미적지근한 이유는, 위와 같은 착상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극심해진 조율증으로 인해 전술했던 정치 극단주의적 언사들을 일삼아왔는데, 이 지점에서 앨범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제가 음악 자체에 쏠려야 했을 진정성의 부재다. 생각해보자. 평소 열렬히 동경하던 아티스트의 앨범을 듣는 청자는 기쁘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미세한 사운드와 자잘한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듣는다. 반면 진정성과 행적에 의구심이 드는 아티스트의 앨범을 듣는다면? 더욱 기를 쓰고 열심히 들을 것이다. 그 아티스트가 예술로써 표구하는 진실된 인간상과 대외적 셀러브리티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실히 재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음악 안에서 보화처럼 엄폐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예술관에 설득당할 수도 있고 열렬한 팬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어디까지나 그 음악이 음악다운 화성 구조와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다면— 리릭시즘과 음악의 진정성이란 그 존재만으로 청자를 아티스트의 곁으로 견인하는 흡인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칸예는 이러한 진정성을 자유자재로 음악에 녹여낼 줄 아는 인물이었고, 그 결과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가히 절대적인 지지층을 얻어낸 바 있었다. 심지어 그 <Donda>에서도 —비록 단락적이고 지루했지만— 특유의 진술함과 회개적 성격이 여실히 물어나오게 한 인물이 우리가 알던 '칸예'라는 에고이자 현상이었다. 그런데 <Vultures>의 시대에 들어서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되바라지고 의식없는 음악들을 만들기에 이르고야 만다. 가장 진솔한 참회나 입장이 필요한 현시점에, 디스코그래피 사상 가장 가볍고 무게감 없는 앨범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곧바로 사운드 자체의 가벼움으로 이어진다. 소리의 음형이나 사운드 소스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음형과 사운드 소스들을 배합해 원숙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칸예의 프로덕션 일변도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된다. 자연히 바로 이 지

점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노련하며 정돈된 완성품이 아니라, 장난과 향락에 젖은 플레이리스트 쯤으로 전락된 음악성이 창작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대다수의 세인이 <The Life Of Pablo>와 <Donda>에 가졌던 유기성 부재에 관한 의문이나, 믹싱에 대한 불만 또한 같은 선상에서 발생한 종류의 것들이었을 테다. 날 것 그대로의 샘플러와 정제되지 않은 믹싱, 철 지난 트랩 풍랑, <Vultures 1>이 바라보는 세계는 <Donda>나 <The Life Of Pablo>가 예견하던 가장 암적인 결말을 대중 앞으로 끌고와 전시한다. 칸예가 <Donda>를 통해 일말의 회생 가능성마저 상실되었음을 암시했지만, <Vultures 1>이라는 결말은 상상한 것 이상의 저급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반면 <The Life Of Pablo>의 미학은 이전작들과 비교해 밀리지 않을만한 이디엄을 가지고 있었고, <Donda>는 지루한 순간을 견뎌야 할지언정 놀라운 음악적 고점을 지니고 있었다. 어쩌면 <Donda>에 비해 음악의 유기성과 흐름이 상당히 다듬어져 있음에도, <Vultures>가 좋은 앨범이 될 수 없는 이유 또한 이런 음악적 태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The Life Of Pablo>의 단점과 <Donda>의 해소법을 몰아넣은 듯 한— 이 비변증법적 콜라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감탄과 환희보단 절망에 가깝다. 어쩌다 칸예의 음악에서 전율과 감격 대신 '이만하면 괜찮지'란 합리화가 쏟아지게 되었느냐고? 지나치게 높아진 자만심과 무지막지한 저급함을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미명 하에 물밀듯이 쏟아냈을 때, <Donda>의 리스닝파티가 열렸을 때, <Donda 2>라는 희대의 출작으로 스템플레이어의 혁신성을 절멸시켜버렸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의 결과값으로 <Vultures>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칸예의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한편, 즉발적 감상을 떠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그의 창의성이나 인적 자원 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 <Vultures 1>의 세계에서 충분히 그 소명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칸예에만 치중된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 즉 테일러 갭 출

신 래퍼 타이 달라 싸인(Ty Dolla \$ign)과 칸예의 합작 활동을 통해 탄생했다. 그럼에도 세상이 냉혹하리만치 앨범 내 싸인의 존재를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칸예의 막대한 존재감에 묻혀서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앨범 속 싸인의 입장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비하기 때문이다. 굳이 싸인의 음악적 발전도가 어떻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설명하기엔 이미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세인은 칸예의 음악성이 어느 정도의 진퇴보를 겪는지 논의할 것이고, 그 논고에서 싸인의 존재는 <KIDS SEE GHOST> 속 Kid Cudi를 언급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 할 것이다. 아니, 확실히 Cudi보다도 못할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KIDS SEE GHOST>의 Cudi는 후반부 전체에 걸쳐 자신이 음악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앨범의 특특한 둘째 주인공이라도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칸예의 악기' 같은, 적잖이 합당한 우스갯소리를 공유하는 것치고 싸인의 활약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소소하며, 단락적인 데다 지극히 일차원적이다. 물론 그의 목소리야 현시대의 대중성과 로맨티시즘을 대국가적 라디에이터마냥 발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Vultures 1>같은 작업에서 그런 것들이 당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The Divine Feminine> 속 알앤비 풍 낭만주의의 기조는 트랩 파고에 수몰되어버렸고, 싸인의 특장점이 드러나는 특유의 목소리도 칸예의 방자한 사용 탓에 몇몇 곡에만 저류되었다. 물론 이는 사실상 주도적 위치보단 이끌리는 자리에 있었던 싸인의 입지가 시사하듯, 싸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 칸예 프로덕션의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오히려 싸인이 이 총체적 난국의 앨범 속에서도 늘 고취하던 방향성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사실은 작품의 거의 모든 문제가 칸예로부터 촉발되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그것조차 칸예가 의도한 바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싸인의 태도에서 '향락'이 보일지언정 '가벼움'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그에 대한 일말의 긍정을 남겨두는 것 같다. 아마 그것이 이 앨범의 성취한 거의 유일한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음악을 보자, 어떤 것이 놓여있는가? 앞에서 서술했던 수많은 불만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앨범의 음악 '자체'는 퍽 훌륭한 편이다. 하기야 보기 싫을 정도로 구애하는 JPEGMAFIA, 앨범 전곡에 힘을 보탠 타이 달라 싸인, 감격적 재회를 일궈낸 Mike Dean과 언제나 그의 편이었던 Digital Nas, Lil Durk, 그리고 별다른 생각조차 없는 듯한 Playboi Carti 등 조력자들이 뒤에 굳건히 서 있었으니 지당한 결과일 것이다. 앨범을 위해 기꺼이 칸예의 인스트루멘탈이 될 준비를 마친 이들은 각자가 자신의 트랙에서 최적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2010년대의 칸예가 쌓아놓은 풍족한 인적자원이 마침내 *< Vultures 1 >*에 이르러 선업의 결실로써 발로된 것이다. 물론 아직은 건재한 칸예 자신의 창의성 또한 큰 역할을 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가옥처럼 불안정한 이 앨범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인적자원의 풍부함과 사라지지 않은 창의력이었을 것이다. "Talking"의 유려한 샘플 수법과 둔탁한 싱어 활용, JPEG 프로덕션의 "Stars"를 더욱 풍성케 만드는 루프와 연출력의 송고함, "Back To Me" 속 Runaway를 연상시키는 드럼과 감탄스러운 흑까지— 그가 상상력을 십분 발휘한 순간마다 앨범 속 좋다고 할 만한 순간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직 그의 뇌 구조 안에 창조적 사고가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다. Carti의 걸출한 피처링보다 더욱 인상적인 "Carnival", "Vultures"의 프로덕션, 압도적 기호에 그치지만 풍부한 관용구가 부여된 "Burn" 등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기적처럼 앨범의 수맥을 잡고 휘젓는 칸예의 창의력 만큼은 부정하기 힘든 까닭일 것이다.

그런 것들보다 앨범의 만족스런 감상을 해치는 건 순수히 칸예의 랩이다. 아무리 프로덕션 면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노라 한들 "No More Parties In LA"나 "New Slaves" 속 보화같은 벌스를 뺐었던 인물의 랩이라고 하기에 *< Vultures 1 >* 전반의 래핑은 뻔하고 지루하며, 끔찍하리만치 외설적이다. 오히려 보컬적인 면만 따졌을 때 미약한 존재감을 보였던— 싸인의 벌스들이 훌륭한 측면 속한다는 사실은 칸예의 래핑과 노래가 앨범에 얼마나 치명적 약점으로 자리하는지 파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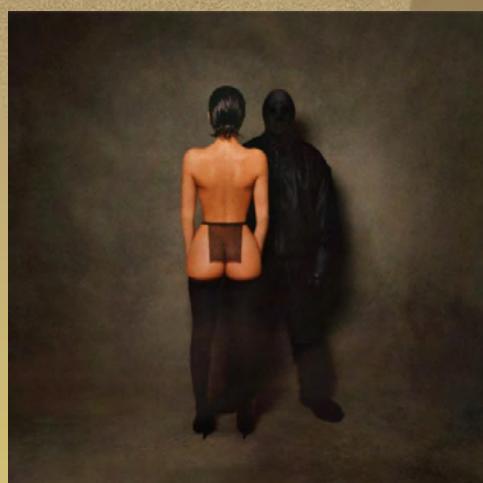
시사한다. 이제 그는 래퍼라고 하기엔 *<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의 호소력도, *< Yeezus >*의 매력도, *< The Life Of Pablo >*의 기술력도 보여주기 힘든 위치까지 추락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가사만큼 그의 무료한 랩을 더럽히는 요소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지적했던 "Back To Me"의 "Beautiful, naked, big-titty women just don't fall out the sky" 라인을 비롯해, 칸예가 뺏는 성적 뒤틀림과 문란의 표상은 단순히 '표현론적 산물'이라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면이 다분하다. 그건 포스트모더니즘적 광휘나 자만심의 발로라기보단 앞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가벼움'의 문제일 텐데, 그간의 행적이 워낙 파란만장해서인지 세인은 이런 사실들을 종종 배제한 채 앨범을 평가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단언컨대 일련의 진정성 부재, 음악적 분위기를 막론한 리릭시즘의 가벼움이야말로 앨범의 호소력과 장점을 까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악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칸예가 드러내겠다는 예술성의 발로와 여성의 엉덩이, 난잡한 성관계는 정말 아무런 상관관계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앨범 속 칠나의 순간마다 포착되는 가공할 창의성, 작품 전체를 운반하는 트랙 전반의 흡인력까지, 칸예 음악성의 날개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요소들도 많지만— 위와 같은 장애물들은 작품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공포한다. *< Donda >*와 *< Donda 2 >* 속 심각한 유기성의 부재, 서툰 완성도의 문제 등을 일부 해결했을지언정 본작이 칸예 크로널러지의 명백한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Stars"의 장엄함, "Back To Me"의 아이디어, "Carnival"의 충격을 감상하기에 청자가 감내해야 할 사항들은 너무나 길고, 정신 없을 정도로 수더분하다. 칸예가 아직 "Everyday"—정발된 앨범에선 샘플 클리어 문제로 수록되지 못했다—와 같은 샘플러의 천재성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리릭시즘, 혼잡한 구성에 관해 더 이상 긍정적 스탠스를 고취하기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동시에, 그래서 더욱 칸예의 일대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을 더는 *< The Life Of Pablo >* 때와 같은 존경의 시각으로 보기도 어려워졌다.

다. 전작들에 비해 그 구성과 기승전결을 보다 뚜렷하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이나, 계속 칸예가 들쭉날쭉한 분위기의 곡 배치와 플롯 설정으로 난잡한 전개를 이어나간다면— 더이상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꼬리표로 해석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보다는 '완전한 앨범 구성 능력의 상실',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체의 오만함' 등, 다소 원색적이면서도 근원적 함의를 담은 추궁이 칸예의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는 수록되지 못한 "New Body", "Good(Don't Die)" 등의 진정성 있는 아이디어에도 계속 커리어의 밑바닥만을 허우적대게 될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칸예가 그의 소명을 음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관건은 칸예가 그 절체절명의 시험대를 끝내 넘어설 수 있나 하는 것일테다.

끝머리에 앞서 잠깐 다른 길로 새자면, 필자는 칸예가 그의 예술성을 온전히 발휘하고자 할 때 언제나 앨범의 컨셉과 주제를 확실히 노정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인즉슨 'College' 3부작의 음악엔 '대학 중퇴', '재등록', '졸업'의 테마와 분위기가,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의 음악엔 칸예 고유의 자아와 욕망이 담긴 신세계가, <Yeezus>에선 거만함과 자기애로 가득 찬 유사 종교의 풍취가 느껴졌다는 것이다. <Vultures 1>의 세계에선 독수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단언컨대 Vianca의 엉덩이가 노출된 커버와, 외설과 문란으로 범벅된 음악을 들으며 독수리의 무드를 경험한 청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곧 돌아온다는

<Vultures 2>와 <Vultures 3>에선, 칸예가 그린 독수리의 세계가 청자의 혈관과 신경 속에 머무는 음악이 있길 기대한다. "Beg Forgiveness" 같은 변명과 자기위주의 사고가 아닌, 원숙한 중년기의 회포와 고통이 있길 기대한다. 하기야, 생각해보면 이런 주문에 가까운 기대들이야말로 그동안 청자가 '칸예'라는 에고에 거는 선망과 애정이 얼마나 지대한 종류의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다. 그를 만난다면 이전의 거대한 음악적 업적은 기대도 않으니, 그저 우리가 예전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당신의 진정성에 얼마만큼의 위로와 감동을 얻었었는지 돌아보게만 해달라고 전하고 싶다. 난잡하고 외설적인 자기과시가 아닌 진심 어린 자기투영으로, 그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하던 한 자아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서.



VULTURES 1

KANYE WEST
TY DOLLA \$IGN

2024.02.10

1 STARS

2 KEYS TO MY LIFE

3 PAID

4 TALKING

5 BACK TO ME

6 HOODRAT

7 DO IT

8 PAPERWORK

9 BURN

10 FUK SUMN

11 VULTURES

12 CARNIVAL

13 BEG FORGIVENESS

14 GOOD (DON'T DIE)

15 PROBLEMATIC

16 KING

Full Review



리틀 심즈(Little Simz)의 Drop EP 시리즈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앨범 발매가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과도 같다.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발매된 이듬해에는 새로운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으니, <Drop 7>는 그녀가 빠른 시일 내에 리스너들 앞으로 새로운 앨범을 들고나올 것이라는 신호와도 같다. 즉, Drop EP 시리즈는 리틀 심즈의 다음 정규작을 예고하는 미공개곡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면 적절할 것이다. 항상 이러한 작업물들로 리스너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그녀에겐 거의 일상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녀

의 새로운 앨범에는 조금 색다른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본작은 리틀 심즈가 처음 시도하는 스타일의 앨범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대의 까닭이다. 리틀 심즈가 웅장하고도 창의적인 비트초이스, 그리고 현란하고 여유 넘치는 래핑으로 리스너들의 이목을 끌어왔다면, <Drop 7>에서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로비트, 그라임, 브레이크 등 그녀와는 거리가 다소 멀어보이는 듯한 장르의 음악을 구사해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하지만 리틀 심즈는 전혀 문제없이 소화해내고야 한다. 이런 큰 변화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이다.

그녀의 스타일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트랙은 "Mood Swings"이다. <Sometimes I Might Be Introvert>의 "Introvert", <NO THANK YOU>에서의 "Angel" 등, 언제나 가장 큰 청각적 쾌감을 선사하는 인트로 트랙을 선보여온 그녀이기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몇 번 들어보게 된다면 청자들은 그녀에게 설득당하고 만다. 리드미컬하고도 정교하게 짜인 비트 위에 마치 한 마리 사자를 풀어놓은 듯한 리틀 심즈의 랩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Torch" 또한 앞선 이유로 앨범 최고의 뱅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빠른 템포의 비트 위 리틀 심즈가 뺄 어내는 랩은 이전의 스타일과는 분명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어색함은 커녕, 리틀 심즈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곡이다.

하지만 여느 Drop 시리즈가 그렇듯, <Drop 7>의 퀄리티 자체는 다소 조잡한 편이다. 대부분의 트랙이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 들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시리즈 EP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축에 속한다. "Fever"는 상당히 지루하고 어떤 장점조차 찾아보기 힘든 트랙이며, "SOS"와 "I Ain't Feelin It" 같은 곡들은 다소 춘스럽고 기억에 남는 부분 없이 그저 훌러가는 트랙으로만 느껴졌다. 길

이가 1분이 채 안 되는 "Power"는 앨범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트랙이다. 미공개곡에서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일종의 스니펫(Snippet)처럼 느껴지는 트랙은 다소 당황스럽고 앨범의 몰입을 해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Far Away"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된 트랙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노래임은 확실하다. 전작들의 보컬과 비교하면 "Far Away"에서의 리틀 심즈의 보컬 퍼포먼스는 매우 훌륭하다. 그녀의 내성적인 면모가 돋보이며, 잔잔한 피아노와 호른으로 벼우려진 근사한 비트 또한 매우 좋은 요소였다. 하지만 그에 반해 곡의 전개는 너무나도 뻔하고 지루하다. 보컬 퍼포먼스와 비트 모두 좋은 트랙이었으나, 그 둘의 조화는 그다지 좋게 다가오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리틀 심즈의 <Drop 7>는 다소 아쉬운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Drop 시리즈의 퀄리티는 언제나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여기로부터 뻗어나가는 진가는 정규작에서 발휘되곤 하였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곧이어 발매될 새로운 앨범 또한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품는다. <Drop 7>에서의 트랙들은 다소 아쉽게만 느껴지지만, 추후 우리는 더욱 발전된 새로운 스타일의 리틀 심즈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rop 7

little Simz

2024.02.09

- | | |
|---------------|---------------------|
| 1 Mood Swings | 5 I Ain't Feelin It |
| 2 Fever | 6 Power |
| 3 Torch | 7 Far Away |
| 4 SOS | |

All Is Yellow

Lyrical Lemonade

리릭컬 레모네이드(Lyrical Lemonade), 힙합 장르 위주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기업이다. 창립자 콜 베넷 (Cole Bennett)의 높은 명성과 많은 아티스트와의 친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협업을 탄생시켰다. 그렇기에 이것이 콜라보레이션 앨범 발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수많은 힙합 스타들이 모인 초대형 프로젝트 앨범 <All Is Yellow>이 탄생하게 되었다.

DJ Khaled나 Nigo의 앨범을 비롯한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등장하는 아티스트들의 목적은 좋은 음악이 아닌, 오직 돈만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곤 한다. <All Is Yellow> 또한 그러하였다. 앞서 언급한 두 아티스트의 앨범에 비하면 실험적인 요소와 다양성을 가득 머금고 있으며, 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 트랙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의 보컬 퍼포먼스는 기대 이하이고 곡에서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의 조합은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대부분의 트랙을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다. Kid Cudi와 Lil Durk가 참여한 "Guitar In My Room"은 다소 뻔한 플로우와 성의 없는 프로덕션이 합쳐져 앨범 최악의 노래 중 하나가 되었다. \$NOT과 6 Dogs의 "With The Fish"는 아무런 느낌조차 들지 않는 끔찍할 정도로 평이한 트랙이다. "Doomsday Pt. 2"에서 Eminem은 또 한 번 Benzino를 디스하며 진부하고 듣기 불편한 래핑을 보여주었고, "Hello There"과 "Fallout"의 보컬 퍼포먼스는 임팩트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곡의 전개, 프로듀싱, 래핑 등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 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 각각의 음악은 훌륭한데, 그 결과물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앞서 '돈만을 위해 참여하였다'는 말이 이 작품에도 적용되는 느낌이다.

종합적으로 <All Is Yellow>는 장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곡에서 개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앨범의 프로듀싱과 비트는 다소 촌스럽거나 듣는데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컴필레이션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에 목숨을 걸며 아주 뻔한 앨범으로 남기지 않은 점은 매우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힙합 앨범이 될 수는 없다. 앨범 자체의 매력과 영혼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에, <All Is Yellow>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매함 그 자체의 앨범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All Is Yellow>는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앨범 정도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하지만 실험적인 요소와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낸 작품이다 보니, 다른 컴필레이션 앨범에 비해선 훨씬 훌륭한 부분 또한 존재한다. "Fly Away"에서의 중독적인 Sheck Wes의 보컬, JID의 감탄을 연발하게 만드는 래핑을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다. Teezo Touchdown, Juicy J, Denzel Curry, Lil B, Cochise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혹은 다소 과상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First Night"또한 앨범의 성공한 실험에 완벽히 부합하는 예시이다. 조합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개성으로만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아티스트들이 뭉쳤기에 또 하나의 훌륭한 힙합 트랙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당당히 앨범의 베스트 트랙으로 자리매김했다.

All Is Y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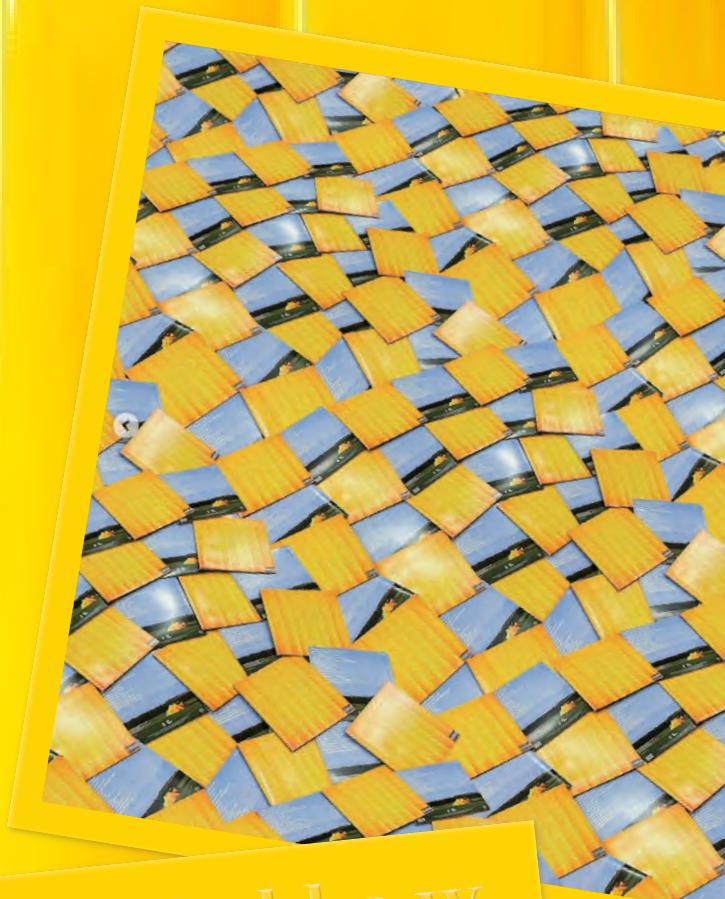
Lyrical Lemonade

January 26, 2024



- 1 Fly Away
- 2 Guitar In My Room
- 3 Say Ya Grace
- 4 This My Life
- 5 First Night

- 6 Special
- 7 With The Fish
- 8 Doomsday
- 9 Doomsday Pt. 2
- 10 Fallout
- 11 Equilibrium
- 12 Hello There
- 13 Hummingbird
- 14 Stop Giving Me Advice



Full Review

Heat 2093



Heat 2093

by offe)

장르 열풍에 뒤따르는 전염은 시대를 치환하는 상징적 대명사를 남기곤 한다. 1990년대의 이스트코스트 힙합과 G-Funk, 2000년대 애틀랜타 트랩에 이어 2017년의 사운드클라우드 & 이모 랩까지. 하지만 이 섬광의 반짝임 아래 등장한 예술가들의 목록을 상기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비슷하다.

Lil Uzi Vert의 싱글 트랙 “Just Wanna Rock”이 곧 저지 클럽 장르 전체를 대표하는 심볼로 여겨지고, 드릴의 슈퍼스타가 Pop Smoke에서 Central Cee와 Ice Spice로 변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동안, 오늘날의 장르 유행이 급진적일지언정 새로이 개최된 파티에선 주로 신예들 보다도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한 슈퍼스타들(Drake, Lil Uzi Vert 등)이 수혜를 받으며 자신들 몫의 케이크를 쓸어가곤 했다. 물론 언급한 예시처럼 규격을 벗어난 성공 사례들을 꼽을 순 있으나, 잠시 여유를 부리면 전과 다른 색의 빛이 네트워크에 번져 파급되는 상황이 다반사였다. 유행의 탈바꿈이 비약적인 속도를 자랑하며 걷어차인 사다리들이 흙바닥을 뒹굴 때, Yeat는 2010년대 후반을 풍미한 레이지의 빌딩을 올라 정상에 올라선 몇 안 되는 정예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Yeat를 당당히 현 위치에 오르게 해준, 그의 체급을 키워낸 최고의 원동력인 다작은 점차 매너리즘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것이 Yeat의 인기나 성장이 끝물에 다다랐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저 그의 차기작이 <MorëAftérLyfe>로 완성되는 트릴로지가 아닌, 필히 <Lyfè>와 <AftérLyfe>를 상회하는 무언가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Yeat를 메이저의 반열에 오르게 한 힘은 분명하게도 여타의 수식어 없이 Yeat로서 존재하게 만든 그만의 의뭉스러운 견인력에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그의 재능을 더욱 꽂피우기 위해서 이제는 기존 굴레에서 탈피해 좀 더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여야만 했다. 그런 비판적 시선에서 응시할 때, Yeat는 그 답으로서 상당히 유효할,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와 <Midnight Marauders>로부터 백 년이 지난 뉴 밀레니얼 <2093>을 제시했다.

‘I live in 2093’. Yeat가 그토록 외쳐댄 외계 존재와 미래 시대의 이야기가 음악으로서 처음 등장했다. <스타워즈>와 <매트릭스>, 그리고 <인터스텔라>와 <사이버펑크 2077>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 역사의 명목을 잇는 가히 전통적이고 익숙한 소재다. 때문에 주제의 참신함을 논하기엔 당치도 않으나, 완성된 교본과도 같은 단골 주제가 오늘날에도 건재한 이유는 동시에 <2093>의 방법론에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 앞서 미래 시대를 다룬 선례 <Funcrusher Plus>와 <Deltron 3030>가 존재하지만 <2093>은 엄연히 다른 매력으로 당당히 돋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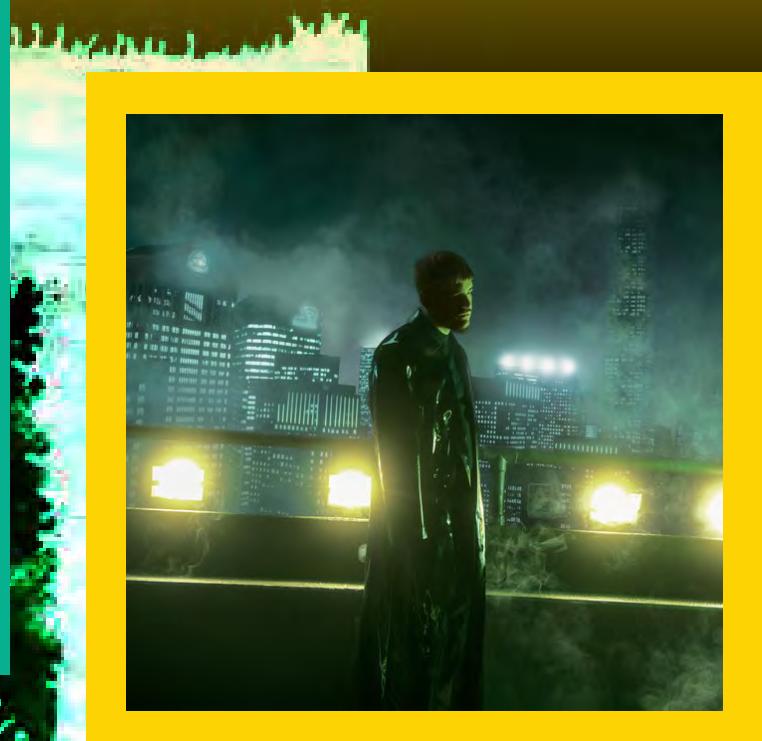
단계적으로 살펴볼 때 본작의 전면에서 귀를 사로잡는 것은 사운드의 품질이다. 전반적으로 Yeat의 부푼 야망에 힘을 싣는 프로덕션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낸다. 전작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은 주로 저음계 위주의 트랙들을 배치하며 강력한 인더스트리얼 계열의 사운드 요소들을 기저에 깔아두는 기법이다. 그 위로 가세하는 세부적인 요소들 역시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다수의 트랙에서 사용된 오케스트라틱 스트링 사운드가 눈에 띄고, 신디사이저의 강력한 디스토션과 리버브 효과를 동원한 백그라운드 사운드의 활용 역시 마찬가지다. “2093”的 강력한 신디사이저 디스토션, “If We Being Réal”과 “1093”的 도입부 스트링 사운드 및 신디사이저 멜로디 등, 그간 Yeat의 앨범에서 찾아볼 수 없던 걸쭉하고 몽롱한 분위기의 에스테틱이 앨범 내내 감정의 톨리코스터를 조성하며 머릿속 트랙 코스를 활보한다. 그간 “IDGAF”, “Talk”, “Sorry Bout That”, “Monéy So Big” 등으로 협업한 Yeat의 흥행 보증 수표 프로듀서 BNYX 및 Trgc 대신, 본작에서는 그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M, Synthetic, star boy 등의 프로듀서를 참여시키며 이전보다 더욱 컨센츄얼한 디스토피아 SF 블록버스터를 구현해냈다.

하지만 티타늄 개조체 껍데기를 뒤집어써도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사이보그처럼 그를 둘러싼 배경의 인자들이 급변해도 Yeat에게선 여전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가 기어이 자신의 앨범에도 외계 시네마틱을 구축했으나, 이 새로운 테마를 시연함에도 Yeat에게선 그리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큰 스타일 변화 없이 더욱 물 오른 기량을 선보이는 그의 랩 퍼포먼스 덕분이다. 비록 사이버펑크 카코토피아의 클리셰를 따라가기에 이전만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성장한 Yeat의 역량은 여전히 그의 연설회장을 길길이 날뛰는 육성으로 점철한다. 급진적 실험에서 가장 확고한 중추가 된 Yeat의 랩 퍼포먼스는 모든 트랙들의 유기성을 총괄하는 뼈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때문에 그가 잊지 않은 오리지널리티, 속된 표현으로 Yeat의 지랄과 뻔뻔함이 변함없음은 상당히 괄목할 감상 포인트다. 루마니아계 백인, 외계 호소인, 터번과 페이스 마스크, 의중을 알 수 없는 무작위적 움라우트 표기, 프로덕션과 물아일체가 되는 뻔뻔하고 무드틱한 래핑까지. 앨범의 화자 Yeat는 카메라와 이어폰을 오가며 리스너들이 마주 하던 모습 그대로다. 음악 외적으로 펼쳐온 CEO 캐릭터를 내세운 “Psycho CEO”, 고독한 통제자의 입장에서 허무 맹랑한 전지전능을 과시하는 “Bought The Earth”, 물질주의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ILUV”, 긴밀한 협력자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며 부의 긍지감을 뽐내는 “Familiar”까지. 뒤바뀐 장르에서도 이질적일만큼 익숙함이 느껴지는 건 Yeat가 자신의 SF 시나리오에 훌륭히 동화된 물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Yeat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전위적인 본작에서도 그가 자신의 유니크한 캐릭터와 흥행 성공 공식 모두를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Drake, Nicki Minaj, Kid Cudi, Lil Uzi Vert 등 메인 스트림의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줄곧 실망스러운 역량을 보여주는 요즈음, 주류에 속하는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꽤 혁신적인 변신까지 매력적인 빛깔로 그려낸 Yeat의 <2093>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강력하다. 그의 예술적 진보가 Kanye West의 신보와 판매량 경쟁을 성사시킬만큼 성장한 Yeat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집착에 가까웠던 Yeat의 광기 어린 신비주의 컨셉은 <2093>을 통해 그의 음악에 녹아든 난센스에도 설득력을 입혀내기 시작했다. 그를 트렌드에 편승한, 잠깐의 스파크로 취급하는 의견들은 이 웰메이드 SF 작품의 앞에서 무색해진다. 이제 그의 소비층을 그저 컬트적인 추종자들로 취급하기엔 다소 곤란하다. 본작의 실험성이 앞으로의 Yeat에게 연장선이 될지, 혹은 일회성 이벤트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덕분에 <2093>의 뒤를 잇는 Yeat의 탈바꿈이 어떤 결과물로 찾아올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리스너들은 그를 진정한 예술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2093 Yeat

2024.02.16

- | | |
|--------------------|----------------------|
| 1 Psycho CEO | 13 Riot & Set it off |
| 2 Power Trip | 14 Team ceo |
| 3 Breathe | 15 2093 |
| 4 Morë | 16 Stand On It |
| 5 Bought The Earth | 17 Familia |
| 6 Nothing Changë | 18 Mr. Inbetweenit |
| 7 U Should Know | 19 Psychocainë |
| 8 Lyfestyle | 20 Run Thëy Mouth |
| 9 ILUV | 21 If We Being Réal |
| 10 Tell më | 22 1093 |
| 11 Shade | |
| 12 Keep Pushin | |

Full Review



QUADECA



SCRAPYARD

by 알날

하나의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이를 종종 망각하고 자신의 것을 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고는 한다. 혹자는 하나의 기질을 흑백 논리로 양분하고 난도질하는데, 이것이 분명 부끄러운 행위임을 아는 나 역시도 삶을 맴돌며 좌우의 논리로 이를 저울질하곤 한다. 분명 염치없는 일이겠다. 게다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바로 감정의 극치를 달리는 가운데에서 주체를 털어놓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예술 작품들을 마주할 때다. ‘가장 예술적’이라는 말이 꼭 자기투사적일 필요는 없겠으나, 하나의 진솔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 때면, 나는 이를 ‘정말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누군가는 분명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예술에 있어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토로하거나 스스로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임을 이해한다면, 그 감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소개할 하나의 작품은 나의 염치 보관함에 또 하나의 예술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음악적 성장은 뮤지션 개인의 성숙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래퍼로 시작한 콰데카(Quadeca)의 변모는, 예술적 성숙함이라는 모호한 현상으로서 등장하는 그에게는 딱 알맞은 수식 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열네살의 나이로 커리어를 시작한 랩 유튜버는 어느덧 스물하나의 나이로 <I Didn't Mean to Haunt You>란 작품으로 잔혹한 영적 세계를 걸출하게 표현해낸 바가 있다. 이제 그의 나이 스물셋, 콰데카는 <SCRAPYARD>, 고철장이라는 믹스테잎을 통해, 또 한 단계 성장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 층 더 나아간 예술적 자기 투사로써, 그의 언급대로도 정말로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작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콰데카의 <SCRAPYARD>는 전작 <I Didn't Mean to Haunt You>와 유사한 아트 팝을 기두로 사이키델릭과 글리치 팝 요소의 사운드를 선보이지만, 전보다도 훨씬 다양한 장르를 포용한다. 그 혼자서 전곡을 프로듀싱하고 믹싱한 결꽃값일까. 장르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로움이 버젓이 자리 잡음에도, 본작은 그의 인생과 교차되며 치열하기 그지없는 예술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장르를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로 정제된 사운드의 영적 공간감은 결국에 콰데카의 삶의 일부를 톡 떼어와 보여줄 뿐이니, 난해하다는 감상보다는 감정적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는다. 자신의 작법에 적응하고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휘두르며 토로하는 것은 과연 이번 믹스테잎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방법론이 되지 않았을까.

음악으로 뜯어본 앨범 속의 삶은 이별과 고독으로 가득 찬 만큼이나 내향적이고 우울하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랍도록 섬세하다. 콰데카가 가진 특유의 섬세함은 그의 음악상에 전적으로 반영되었고, 음향적 공간감을 통제하며,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음악 요소마저 적절하게 포장하고 제어한다. 소용돌이치는 신디사이저, 배경으로 자리 잡은 현악기 소리, 분산된 비트마저 하나의 음악으로 응집하고 있다. 게다가 음악적 응집의 지휘자는 다름 아닌 콰데카의 일관적인 보컬에 있다는 점이 역시 여러모로 놀랍다. 여러 장르를 녹여냈음에도 그의 보컬 퍼포먼스는 트랙 간의 편차를 현저히 감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리버브와 디스토션으로 묶어둔 일관적인 보컬의 역량이 음악과 함께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전망하게 된다는 점이 주요하다. 그에게는 보컬마저 하나의 악기로써 사용되었으니, 화자에게 일관적 심상을 토로할 때의 감상은 그에 준할 정도로 음악에 몰입하게 해준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음악 내에 변곡점을 주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콰데카에게는 어디까지나 감정선을 극대화하는 장치를 변곡점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연하고 우울감이 가득한 감정적 호소는 다양한 장르로 군집하여 펼쳐지는데, 당장에 첫 트랙 “Dustcutter”가 이목을 끄는 까닭도 무거운 피아노 음, 복잡한 베이스 및 신디사이저 사이에서 하이피치된 콰데카의 과격한 보컬이 버젓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Pretty Privilege”의 디스토션 드럼 변주나, 사이키델릭 록에서 힌트를 얻은 “What’s It To Him” 등의 곡들이 인간 감정의 티핑 포인트를 물씬 자극한다. 심지어는 “U Don’t Know Me Like That”에서는 아웃트로 일렉트로닉 변주가 피치가 잔뜩 변환된 보컬에 어우러지는데, 장르의 궤를 달리하면서도 특유의 감정선은 놓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의 재능을 활용해 독자적인 프로덕션을 여러 장르로 결합했다. 그리고, 그 만듦새는 조잡하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믹스테잎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강점이 되어주는 장면이다. 본작이 독특한 장르를 꾸리면서도 매력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 내에서 감정을 어루만지는 영리한 음악적 호소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서정적인 기타 발라드 “Guide Dog”와 같은 자고백적인 서정적 트랙이 자연스레 앨범 내에 자리 잡은 까닭도 콰데카의 감정선이 리스너의 감상에 있어 일정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데에 있기 때문이다.

앨범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위의 “Guide Dog”와 마찬가지로 한 발짝 내려놓은 듯한 음악의 연출을 보여준다. “Being Yourself”的 고뇌가 “U Tried That Thing Where Ur Human”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자. 이마저도 신디사이저의 변환과 함께 주제에 부합하는 로봇과도 같은 보컬 변환이 장치로 이용된다. 게다가 주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여러 보컬을 포개두어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하니,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 낼 뿐이다. 클로징 트랙 “Texas Blue”는 Kevin Abstract와의 협업으로 5분의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I’ll be honest’라는 가사말로 농밀해진 감정을 압축해 전달한다. 오히려 앞선 14곡보다 한층 미니멀한 구성이나, 가득 찬 두 사람의 보컬과 피아노 배경음은 훌륭하게 어우러지며 깔끔한 앨범의 마무리를 자랑하게 되었다. 결국에 1에서 5시리즈 까지 이어진 <SCRAPYARD>의 이야기는 콰데카의 감정을 짜낸 과즙과도 같은 작품이라는 사실만이 남았다.

콰데카의 재능이 물씬 드러난 <SCRAPYARD>의 주요한 시사점은 그가 거리낌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사람들의 애타는 당김줄을 조절할 프로덕션으로 점철되어서 발전해 나갔다. 콰데카의 가장 큰 장점은 어쩌면 이미 존재하는 예술을 개축하는 것이 아닌, 특유의 섬세함으로 담대하고 새로이 꾸미는 음악적 연출력에 있지 않은가. 다양한 장르를 얹어놓았음에도 트랙 간의 고저가 어색하지 않은 것 역시 선연하고도 솔직한 감정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거리낌 없이 발휘한 창의력이 음악적 영감과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기질적인 면에서 정말 예술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QUADECA SCRAPYARD 2024. 02. 16.



- | | | |
|--------------------|-----------------------------|--------------------------------------|
| 1 DUSTCUTTER | 6 WHAT'S IT TO HIM? | 11 UNDER MY SKIN |
| 2 A LA CARTE | 7 U DON'T KNOW ME LIKE THAT | 12 BEING YOURSELF |
| 3 PRETTY PRIVILEGE | 8 I MAKE IT LOOK EFFORTLESS | 13 U TRIED THAT THING WHERE UR HUMAN |
| 4 EASIER | 9 WAY TOO MANY FRIENDS | 14 GUIDE DOG |
| 5 EVEN IF I TRIED | 10 GUESS WHO? | 15 TEXAS BLUE |

Classic Review

CLASSIC REVIEW

HARD TO
EARN
GANG STARR

things fall apart
THE ROOTS

The College
Dropout
Kanye West



HARD TO EARN GANG STARR

GURU
DJ Premier

by Futura Ais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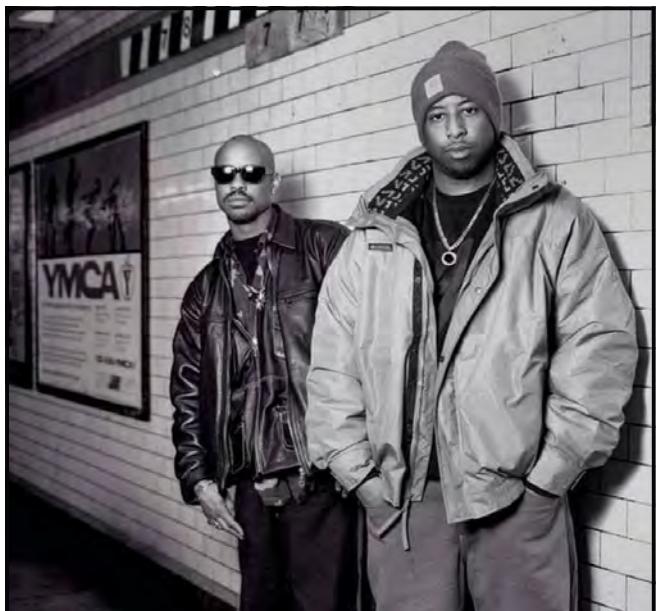
힙합이라는 폐곡선 한쪽에 걸터앉아 있다 보면, 1994년의 뉴욕이야말로 신화적 윤색의 절정이란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된다. 아마 적잖은 수의 세인이 당시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 그 복작거리는 도시 속에서 튀어나온 세기의 명반들에 관해 침을 튀겨가며 설명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헌데 정작 그 광경을 떠올려보라면, 절대다수의 힙합 팬들이 Masamune Shirow의 상상 속에나 존재할 법한 세기말의 마굴을 그리는 것 같다. 이는 억측이나 오역보단 무지에서 비롯된 산물일 것인데, 나쁜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90년대의 뉴욕을 실 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아티스트의 견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공식 하나로 원류의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 만큼이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 것이다. 어쩌면 무지보다 훨씬 나쁜 것이 앨범 한 두 개만으로 당시의 뉴욕 거리에 관해 전부 안다는 양 늘어놓으려 하는 태도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기에 한국인으로서 골든 에라의 음악을 향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묘한 광경의 목도와도 같다. 모두가 황금기의 보배를 추억하지만, 역설적이게도 *<Illmatic>*과

*<Ready To Die>*가 뉴욕의 거리를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설파하려는 한국인 중 대다수는 그 시절의 뉴욕에 가 본 경험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진정성 있는 피력이라기보단 세간의 의견에 탄복해 뱉는, 어쭙잖은 '동의 표현'에 가까울 것이다. 앨범이 좋은데 왜 좋은지 설명하기는 힘드니, 그저 타인의 그럴듯한 글을 보고 자신의 감상과 일말의 공통점을 찾아 피력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일련의 공허한 음악 소비 문화가 가리키는 한 가지 해결책은 '시대정신의 증언'으로 남을만 한 앨범이고, 그 존재의 확인이다. 대다수의 세인은 1994년의 명작들을 '시대정신의 증언' 같은 번지르르한 위치로 올려놓으려 허우적대겠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증언'이란 꽤나 직관적인 표상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말 그대로 그 시절 뉴욕은 어떤 곳이었나— 하는 것들을 시적 허용의 호심경을 통해 일일히 관측하고 대조하는 작품, 2020년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확증의 영역인 것이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긴밀히 파악해야 할 점 또한 '얼마나 개인적으로 묘사했느냐'는 것보단 얼마나 포괄적으로, 얼마나 잘 관찰했는가 하는 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조건에 전부 취합하는 하나의 앨범이 있다. 이 앨범은 무수한 힙합사의 명반이 그렇듯 1994년에 나왔으며, 명반들의 치밀한 공통점을 규합하듯 좋은 창작자들의 통솔 하에 발매되었다. 앨범의 제목은 <Hard To Earn>. 작품의 표제가 암시하듯 이 앨범은 <Illmatic> 같은 개인적 시구나 <Ready To Die>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보단 '먹고 살기 힘든 삶'에 초점을 둔 작업이다. 제조자는 Nas의 절친 디제이 프리미어(DJ Premier)와 그의 동료 구루(Guru)로, 세간에 이들의 역사적 활약은 흔히 갱스타(Gangstarr)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단 한 치의 과장도 없이, 이들이 수행한 작업이야말로 시대의 증언을 가장 명료하고 치열한 방식으로 직조해낸 물건이었다.

앨범의 착상과 전반적인 톤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디제이 프리미어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고, 구루는 활달한 래핑으로 프리모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았다. 앨범 속 핵심적 전언들은 랩 스킬에 관한 자랑, 사회 문제(총기, 마약)에 관한 고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뉴욕에서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는 언어들로 직조되었다. 시대의 증언, 당대의 증언으로 자리할 음악의 표현력이 앨범 전반에 얹힌 세대의 고리와 거리의 제언을 발로시킨 것이다. 물론 그런 표현력 이전에 Public Enemy, Quincy Jones, EPMD 샘플로 무장한 프

리모의 뼈기처럼 단단한 프로덕션, 보다 더 러프하고 타이트한 스킬 위주로 변모한 구루의 랩이 앨범의 밑바탕으로써 착실히 기능했다. 음산하고 남성적인 "Speak Ya Clout", 염세적 이디엄 위에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Mass Appeal", 칙칙한 뉴욕 골목을 형상화하는 "Mostly Tha Voice" 등의 트랙들은 이 앨범이 왜 클래식으로 야기될 수 있는지, 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요소다.



물론 앨범의 전반적 프로덕션을 기름지게 만들어준, 프리모의 공적은 후대와 자신들의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매개로 작용하기도 했다. 갱스타라는—역사에 남을 듀오의 연대기에서도 그의 탄탄한 비트는 두고두고 지침이 될 만큼 모범적이며 훌륭한 종류의 것이었다. 샘플러의 미학, 텁테이블의 유기적 운영과 두 마디 루프로 코러스를 창조하는 작법이야 이미 변증법적이며 안정적이지만, 프리모는 그 통용된 방법 내에서도 최고의 조합과 샘플들만을 엄수해 비트를 직조해냈다. 깨름칙함과 기묘한 감칠맛을 함께 풍기는 "Speak Ya Clout"의 음성 소스, A Tribe Called Quest의 풍압을 비튼 "ALONGWAYTOGO"의 관조적 시선 모두 매력적으로, <Illmatic>에서 선보인 재즈 풍 비트나 듀오의 전작 <Daily Operation>의 따스함과는 또 다른 질감이 돋보인다. 같은 선상에서 멜로디를 철저히 배척하고 드럼 위주의 삭막함을 드러낸 "Dwyck", 주술적 화성이 몰아치는 "Words From The Nutcracker", 현학적 톤의 "Mass Appeal"이 연달아 기능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감상을 전해주는데, 이 모든 흐름의 결과로 멜로디와 드럼 모두가 적정량으로 절제된 "F.A.L.A.", "Comin' For The Datazz"가 나온다는 사실은 프리모가 얼마나 중용의 미학을 탁월하게 탐구하는 인물인지 깨닫게 해준다. 애시드 재즈의 전위적 인터플레이가 담기는가 하면 붐뱁 비트의 절충적 퍼커션이 치고나오는 그 절제미, 그 중간지점. 그것들이 프리모가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로 수없이 언급될 수 있는 까닭이었을 것이다.

한편 프리모의 역량이 압도적이었으나 구루의 랩도 동시대의 명반들과 비교해 밀리지 않을만한 관용구를 가지고 있었다. 프리모가 직조한 비트가 삭막한 배경을 조성했다면, 그 위에 얹어진 구루의 랩은 증언들을 흘뿌리는 도큐먼트 역할을 한 것이다. 하층민의 시선으로 본 뉴욕 근교 어귀와 부조리가 암약한 사회상, 구루는 재치있는 라이밍과 생생한 표현을 통해 직관적 호심경의 자질을 톡톡히 보여준다. 금상첨화로 융해된 막힘없는 플로우, 시원스레 박자 사이를 넘나드는 완급조

절과 어울려 가사가 앨범의 쾌감을 증폭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들어설 때 <Hard To Earn>이 마침내 '시대의 증언'으로 올라서는 이유다. 한편 본작은 피처링 또한 인상적 기호로 남는데, Jeru The Damaja가 써낸 기록적 수준의 피처링 벌스, Nice & Smouth의 경쾌함과 평크 사조가 알알히 침식된 브릿지는 앨범을 즐기는 데에 있어 감초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터프한 분위기를 강조시키거나 막힌 분위기를 조금 해소하는 방식으로, 보컬의 배치나 짜임, 피처링 역시도 중용의 상태를 유지한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Hard To Earn>은 시대의 증언을 그 어떤 과용이나 모자름도 없이 펼쳐낸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Daily Operation>의 감상적 분위기와 <Moment of Truth>의 부드러움과는 또 다른, 칙칙한 갱스타의 입장은 그들의 새 앨범을 명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돋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앨범을 지니는 가치는 갱스타로서의 새로운 개성이라던가, 훌륭한 랩과 압도적 비트메이킹의 합주보단 시대정신의 발로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뉴욕의 거리에 관해 다룬 몇 앨범들을 들으며 묘사력에 관해 월가왈부하기보단 <Hard To Earn>을 들으며 철저한 제3자로서의 감상을 늘어놓는 편이 좋을 것이다. 물론 1994년이라는, 일대 힙합사의 풍요로운 시기에 이 앨범이 동시기 최고의 명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언해건대 당시의 시대와, 그 장소의 골목 사이사이에 얹힌 분위기와 풍토를 <Hard To Earn>만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앨범은 없었을 것이다. 시대정신의 증언, 현실세계의 견인력과 중용.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앨범이 <Illmatic>, <Ready To Die>, <Resurrection>, <Regulate... G Funk Era>의 행렬에서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 삭막하게 짜여진 프리모의 비트와 유려한 구루의 래핑이 합쳐질 때, 거기엔 분명히 뉴욕이 있었다.



HARD TO EARN GANG STARR

1994.03.08

- | | | |
|--------------------------|------------------------------|---------------------------|
| 1 Intro (The First Step) | 7 Aiight Chill.. | 13 Suckas Need Bodyguards |
| 2 ALONGWAYTOGO | 8 Speak Ya Clout | 14 Now You're Mine |
| 3 Code of the Streets | 9 DWYCK | 15 Mostly Tha Voice |
| 4 Brainstorm | 10 Words from the Nutcracker | 16 F.A.L.A |
| 5 Tonz 'O' Gunz | 11 Mass Appeal | 17 Comin' for Datazz |
| 6 The Planet | 12 Blowin' Up the Spot | 18 Doe in Advance |

THE ROOTS

Classic Review

things fall apart

by
q&g



90년대의 힙합을 상기하면 유독 단체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Public Enemy, Outkast, De La Soul 등의 걸출한 이름들이 수도 없이 떠오르지만, 전면에서 문화의 주류를 이끄는 역할은 데스로우 레코즈와 배드 보이 레코즈를 위시한 전형적인 갱스터 힙합의 뜻이었다. 열병기와 냉병기를 가리지 않고 쏘아대는 패거리들, 혈연보다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동료들, 멋들어진 제스쳐와 핸드 사인을 주고받는 이들. Wu-Tang Clan과 N.W.A가 떠오를 익숙한 갤러리의 클리셰들을 돌아보면 장르 특유의 몰입감을 위해선 개인의 매력보단 단체의 시너지를 뽐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모든 집단이 흥행 보증의 불문율을 따르기 위해 억지스러운 빌런을 자처하진 않았다. The Roots도 집단의 움직임을 추구한 이들 중 하나였으나, 그들은 시대 흐름의 대척점에 위치해 주류의 선택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마이크 대신 건반과 기타 그리고 드럼 스틱을 집어 들고, 재즈틱한 악곡의 품격과 세션의 싱싱함을 몸소 실연하며, 포주나 폭력배의 모습보단 인간 내면과 사회·정치 고찰에 시선을 둔 목소리로 힘을 실기까지. 힙합의 뼈대 위 콘크리트가 굳어 너도나도 페인트칠을 시작하던 때, 그들은 홀연히 나타나 손길 닿지 않은 잿빛 진황지에 터전을 드리워 목조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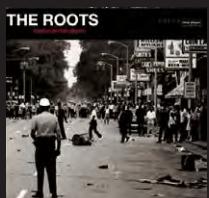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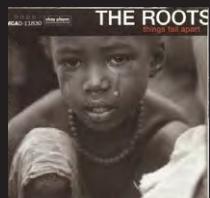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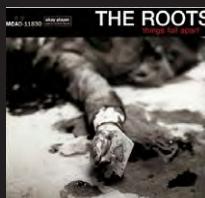
그런 Roots의 아이덴티티는 곧 ‘디아스포라’와도 같았다. 거처를 떠난 민족이 이후 후에 새로운 집단으로 정착함을 표현하는 의미처럼, Roots가 힙합 카테고리를 판정받을지언정 그 원류지가 물씬 풍겨댄 향취는 힙합 크루보다 재즈 밴드 형식에 훨씬 근접했다. 알려진 대로 Roots는 재즈 연주와 라이브 세션의 형식을 빌려 힙합에 이종한 형태를 근간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여느 힙합 그룹들처럼 일류 래퍼들의 무자비한 랩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과 다른 형태였다. 넘치는 자신감의 과시가 교집합으로 향유될 뿐, 그들은 당대 힙합의 안티테제로 보일 여지까지도 충분했다.

Roots는 이처럼 올곧은 지향점을 따라 데뷔작 <Do You Want More?!!!??!!>와 차기작 <Illadelph Halflife>을 발매했다. 두 작품 모두 재즈와 힙합의 혼재를 성공시킨 훌륭한 완성도를 자랑했고, 필라델피아에서 이주한 뉴욕의 외지인 Roots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점점 입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대중적인 관심도가 부족할 즈음 이 시기의 Roots는 색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드러머 겸 프로듀서 ?uestlove가 외부 프로젝트인 D'Angelo의 <Voodoo>와 Common의 <Like Water for Chocolate> 작업에 착수하며, 그의 드럼이 앨범들의 성향을 옮아 재즈와 힙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네오 소울의 향을 머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uestlove는 Roots보다 앞서 힙합과 알앤비의 대안론을 연구하던 단체 The Soulquarians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는 Roots의 앨범마저 뒷전으로 미루며 외부 프로젝트 작업에 몰두하도록 만든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헛날 ?uestlove가 당시를 회고하길 그의 이상향은 어느덧 ‘재즈 힙합’의 올타리를 벗어난 상태였다. 새로운 가능성의 지표를 연 Roots는 더 이상 웰메이드 크로스오버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 흐름 속에서 <Things Fall Apart>가 탄생했다. 본작은 그저 재즈와 힙합의 절충안이 아닌 비로소 ‘Roots’의 캐릭터를 정립한 힙합 디아스포라 최고의 결실 중 하나로 탄생되었다.

전형적인 재즈 에스테틱의 진한 풍미 위 힙합의 구성을 엿어 펼쳐낸 전작들과 비교할 때 <Things Fall Apart>의 프로덕션 구성은 전보다 간소화된 형태를 보인다.



주 무기였던 브래스와 멜로디컬한 사운드 사용의 절제는 전작들 특유의 여유와 경쾌함을 덜어낸다. 그 빈자리를 대신한 쌍싸름한 맛의 드럼이 파편 입자를 남기며 혀 바닥에 맴돈다. 스타우트 흑맥주의 끝마무리처럼 귓가에 감도는 잔향을 입혀낸 방식이다. 때문에 대체로 부드럽고 유려한 사운드를 조성했던 전작들과 달리 사포질을 가미하듯 거칠한 질감이 살아남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비슷하면서도 다른 스타일 탈피의 선례인 *<Midnight Marauders>*를 떠올릴 수 있다. 앨범이 소포모어의 발매 후 새롭게 제시된 A Tribe Called Quest 사운드의 확장판이었음과 달리, *<Things Fall Apart>*는 비록 그 방향성에서 등을 맞댈지언정 ‘가장 Roots스러운 사운드’를 제시하는 방법론이었다.

이 레시피에 맞춰진 공허와 포화의 경계 사이 여백이 설계되고, 이는 장르가 바뀐 새 미장센을 시연하는 무대가 된다. 곧 프로덕션의 본질적 목표인 랩 퍼포먼스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원체 경미한 역량의 결여마저 찾아볼 수 없는 Black Thought는 물론, 그에 못지않게 존재감을 뽐내는 Malik. B와 Dice Raw가 합세해 몰아치는 랩 실력을 뽐낸다. 밀도 높은 리릭시즘이나 라이밍으로 꽉 채운 감투밥은 어느덧 여전하다고 느껴질만큼 꾸준하지만, 본작에서는 전작과 다르게 공간감을 확보한 프로덕션이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한다. 덕분에 어두운 밤에 더욱 환히 빛나는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디너 파티의 향연이 벌어진다. 여유로운 전작들의 분위기를 탈피한 래퍼들의 카리스마에는 매끈하게 날이 서 있다.

필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역시 수려한 청사진의 출처가 된 Soulquarians의 기여다. 탁월한 랩 실력으로 기품 있는 세련미를 뽐낸 Mos Def와 Common (“Dou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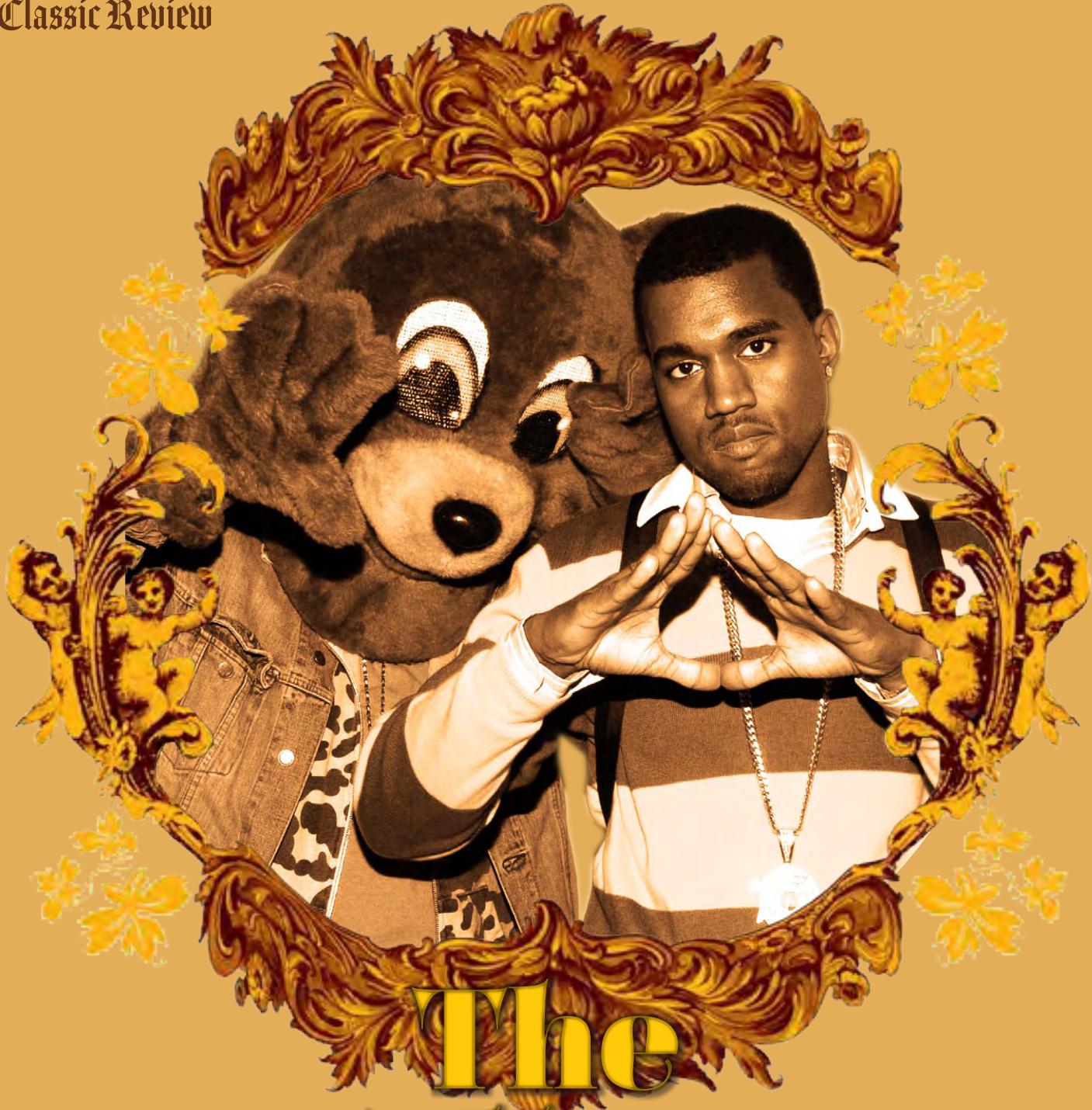
Trouble”, “Act Too (The Love Of My Life)”), 앨범의 미니멀리즘 에스테틱을 지켜내며 캐치한 비트를 선사해 준 J Dilla (“Dynamite!”), 매력적인 목소리로 앨범 막바지의 하이라이트를 빛낸 Erykah Badu (“You Got Me”) 까지. 몸소 디아스포라의 교본을 집성한 그들의 활약상을 감상할 때면 자연스레 일원 Mos Def의 어느 인터뷰 내용이 연상된다. 힙합을 포크 아트, 즉 전통 예술로 명명하며, 이 민속적 문화가 유행과 로컬라이징을 거쳐 미국 각지에 걸맞게 변모하는 양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Roots가 받아들인 얼터너티브 힙합의 값어치와 일치하는 방향성이다. 그간 선행해 온 *<Brown Sugar>*, *<Baduizm>*, *<Midnight Marauders>* 등의 작품들로 그들의 얼터너티브한 실험들의 값어치를 증명해 온 Soulquarians였기에, 콜라보레이션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그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Roots의 예술성이 만개하는 기폭제가 된 *<Things Fall Apart>*. 그 뒤로도 Roots의 걸작 계보를 뒤따르는 *<Game Theory>*와 *<undun>*, 그 외 잊을 수 없는 작품들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긴 90년대 골든 에라에서도 *<Things Fall Apart>*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 앨범 자체의 완성도는 물론 Roots에게도 본작의 탄생이 곧 그들의 데뷔만큼이나 독특한 임팩트를 남긴 변신이었기에, Roots의 독자적인 노선 구축에 뼈기를 박은 *<Things Fall Apart>*의 기여도를 쉽게 헤아리기란 어렵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그들이 가장 대안적이면서 동시에 완벽에 가까운 힙합 밴드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뉴욕의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자유분방한 예술가들의 다음 행선지를 좀처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
| 1 Act Won (<i>Things Fall Apart</i>) | 7 Without a Doubt | 13 Adrenaline! |
| 2 Table of Contents, Pts. 1 & 2 | 8 Ain't Sayin Nothin' New | 14 3rd Acts: ? vs. Scratch 2...Electric Boogaloo |
| 3 The Next Movement | 9 Double Trouble | 15 You Got Me |
| 4 Step Into the Realm | 10 Act Too (The Love of My Life) | 16 Don't See Us |
| 5 The Spark | 11 100% Dundee | 17 The Return to Innocence Lost |
| 6 Dynamite! | 12 Diedre vs. Dice | 18 Act Fore...The End? |

Classic Review



The College Dropout

20th ANNIVERSARY

by 은암

칸예 웨스트(Kanye West), 21세기 최고의 아티스트. 80년이란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 20년 간 이룩한 눈부신 업적을 고려했을 때, 칸예만큼이나 위 호칭에 응당한 자격을 갖춘 이는 또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비단 힙합을 초월해 전 장르를 통틀어서도 비교군이 몇 되지 않는 압도적 디스코그래피, 래퍼들 중 세 손 가락에 들 만한 막대한 상업적 성공, 대중음악 산업에 대한 몇 차례의 변혁. 작금의 업기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성과를 동시에 이뤘다는 사실은 그가 캔슬 컬쳐의 물결에도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주 요인이었다. 때문에 올해로 정확히 발매 20주년을 맞이하는 *<The College Dropout>*의 상징성은 더욱 지대해진다. 그의 출발선임과 동시에 우리가 결코 다시 목도할 수 없을 모습이기에.

시카고 태생으로 시카고 주립 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어머니 Donda West의 교육 하에, 대다수 흑인 청소년들과 사뭇 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했던 칸예는 소위 '엄마 친구 아들'이었던 No I.D.에게서 샘플링 기법을 전수받으며 비트메이커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양질의 드럼 사운드와 샘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리듬감을 강조한 구성으로 인기를 얻은 그의 비트는 Jay-Z와의 만남으로 빛을 보게 된다. 칸예가 프로듀싱한 "This Can't Be Life"의 비트는 Jay의 앨범 *<The Dynasty: Roc La Familia>*에 수록되며 하이 피치 보컬을 강조한 사운드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후 그 자신

과 Just Blaze 등이 칩멍크 소울(Chipmunk Soul) 기법을 전격적으로 사용한 Jay-Z의 *<The Blueprint>*가 상업, 평론적으로 대성하며 명반이란 평가를 받게 되고, 'Roc-A-fella Style'로 통칭되는 고유 음향을 확립한 칸예 또한 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듀서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칸예의 지망과 힙합 씬의 저의는 쉽게 합치되지 않았다. 칸예는 래퍼로서 데뷔하길 희망했고, 동료 래퍼들과 라카펠라 레코즈 임원들은 그가 비트메이커로서 남길 바란 것이다. 더불어 대다수가 게토, GANGSTER 출신이었던 메인스트림 래퍼들과 달리 칸예는 중산층 출신이었기에 남모를 역차별까지 당하고 있었다. 라카펠라와 허울뿐인 래퍼 계약을 체결하던 2002년, 칸예는 교통사고를 당하며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다. 모두가 그의 커리어가 중단되었음을 점쳤지만, 그는 병상에서 드럼 머신을 들고 비트를 제작했으며 입에 철심을 박은 채로 녹음을 진행했다. 때문에 *<The College Dropout>*의 서사는 소년만화적이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불굴의 승고 미에선 '열혈'이라는 고유 속성이 창출되며, 이는 내외적으로 칸예의 1집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칸예 웨스트는 래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다. 라카펠라 프로듀서로서의 커리어는 곧 대학이다. 칸예는 중퇴를 결심하고 날아간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칸예의 금광은 70년대 소울 음악이었다. "She said she want some Marvin Gaye, some Luther Vandross, a little Anita..." 이전까지 단순히 유망한 비트메이커였던 칸예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This Can't Be Life"와 <The Blueprint> 이후 칩멍크 소울로 정착된 셈인데, 이는 <The College Dropout>을 칩멍크 소울의 시초로 사료하는데 난항을 겪게 한다. <The Blueprint> 이후 이미 라카펠라 스타일은 뉴욕 힙합 씬에서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바, <The College Dropout>은 칩멍크 소울에 있어 오히려 최종 완성작에 가까운 음반이다. 그럼에도 본작이 무언가의 최초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The College Dropout>이 순전히 칸예의 칩멍크 소울, 그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앨범의 내용물은 비단 '집대성'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정의될 수도 없다.



칩멍크 소울의 장점은 풍부한 선율이다. 드럼 브레이크와 샘플 프레이즈를 근간으로 둔 힙합은 그 작법과 창법에서 멜로디가 결여된 장르였고, 리듬을 극대화하는 성공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업화를 거치며 힙합에겐 필연적으로 멜로디가 필요했다. 알앤비 코러스와 신스 기반의 비트는 나름 성공적인 절충안이었으나 힙합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칩멍크 소울은 비트 제작 단계에서 이미 그 단점과 한계를 가뿐히 돌파했다. 소울 음악 특유의 낭만적인 선율은 하이 피치되어 랩 보컬과의 음역 중첩을 방지하고, 동시에 고음역대의 멜로디가 악곡 전체에 걸쳐 배치되며 항상 밝은 톤이 유지된다. Marvin Gaye의 "Distant Lover"를 피치업하고 관능적으로 차핑한 "Spaceship",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샘플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Through The Wire"는 이에 대한 걸출한 예시다. 과거 소울 음악에 대한 가장 창의적인 재해석이자 동시에 대체 음악으로서의 전위성을 지닌 <The College Dropout>은 클래식이라는 이름에 적법한 자격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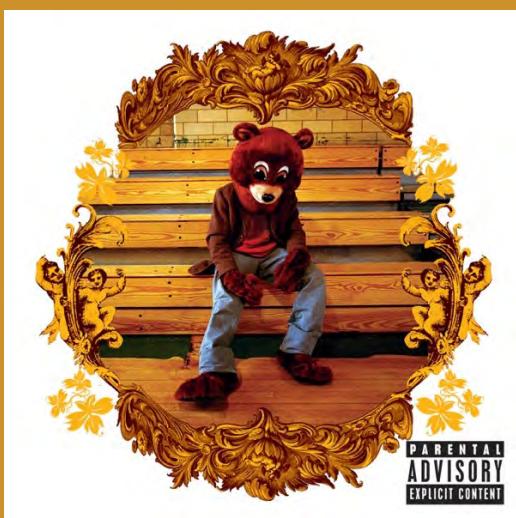
선공개 싱글이었던 "Through The Wire"가 빌보드 싱글 차트 15위에 오르고 "Slow Jamz"가 싱글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앨범을 대표하는 트랙들의 상업적 성과는 신인 래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앨범 개별 수록곡들의 완성도야말로 신인 래퍼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 "All Falls Down", "Jesus Walk" 등 초창기 칸예 웨스트를 대표하는 명곡들은 현재까지 자주 회자되며, 비교적 따스한 얼터너티브 힙합의 톤으로 진행되는 앨범에서도 "Never Let Me Down", "Get Em High", "Two Words" 등 비교적 호전적인 성향을 띠는 랩 트랙들의 존재는 유독 인상적이다. 여타모로 가장 흥미로운 트랙은 "The New Workout Plan"이다. 앨범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으나 파티튠 힙합과 바이올린 연주, 토크박스를 한 곡에서 동시에 시도한 실험성만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 실험성은 의외로 오토툐에서도 이르게 발견되었는데, "Graduation Day"와 "Jesus Walks"에서의 사용이 그것이다. T-Pain 등 남부 힙합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한 오토툐 보컬을 소극적으로나마 삽입한 것이야말로 향후 그가 <808s & Heartbreak>에서 이뤄낼 혁신의 예고편이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토록 출중한 프로덕션에도 불구하고, 칸예의 래핑이 수준 이하였다면 <The College Dropout>이 엄연한 '랩 음반'으로서 고평가받는 일은 존재치 않았을 것이다. 바꿔 말해보자. 오래도 끼어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안개를 걷어내면,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뛰어난 래퍼로서의 자질을 지녔던 칸예를 목도할 수 있다. 칸예의 래핑은 결코 기술적으로 활달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는 정박 기반으로 라임에 강세를 두며 기초 운율을 강조하는 안정적인 플로우를 구사했다. 특유의 직선적인 플로우는 오히려 가사의 전달력을 강화시켜 청자들이 그의 랩에 대해 가지는 공감이 짙어지게 하는데 일조했다. "Never Let Me Down"에서 진심이 담긴 그의 랩이 제이지의 화려한 랩을 능가했다는 평을 받았듯이, 기교를 강조하지 않는 래핑이 오히려 앨범의 프로덕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담백함을 강화한 것이다.

래퍼 칸예 웨스트의 특수성은 그 무엇보다도 리릭 리스트로서의 정체성에서 발현된다. 갱스터 랩이 메인 스트림과 언더그라운드를 막론하고 그 폭력성과 향락적 테마로 힙합을 물들이고 있을 무렵, 칸예 웨스트는 메인스트림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주제에 대해 논 하던 래퍼였다. 핑크 폴로 티셔츠를 입고 책가방을 맨 그는 보다 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가벼운 언사를 뱉을 수 있었다. '컬리지 랩(College Rap)'. 물론 칸예가 이 분야의 첫 주자는 아니다. A Tribe Called Quest는 De La Soul의 지적인 유쾌함을 전승받았고, Common은 시카고 힙합의 정체성 절반이 '컨서

스'로 정의되게 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The College Dropout>의 칸예 웨스트는 그 모든 것을 대중화시킨 이로서 컬리지 랩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공감을 용이하게 한 칸예의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한 작사 방식은 단순히 기성 래퍼들처럼 복잡한 라이밍과 입체적인 비유 등을 향하지 않았다. 더 간단하게, 더 진솔하게. 앨범을 관통하는 캐치프라이즈는 "All Falls Down"과 "Jesus Walks" 등 사회 비판 곡에서 날을 빛내는 반면, "Family Business"에서 가족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보편적 공감을 유도했다.

라카펠라 스타일은 <The College Dropout> 이후 완전히 대중화되었고, 라카펠라의 군림이 종결된 후에도 침명크 소울은 남아 현재까지 칸예 본인, 혹은 후대 아티스트들에 의해 끊임없이 여러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칸예가 그의 데뷔 음반에서 보인 진솔한 면모는 Kendrick Lamar와 J. Cole 등 후대의 유망한 래퍼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이 향락에 관한 라임을 쓰지 않아도 시대의 한 장을 풍미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리고 "Through The Wire", "Family Business", "Last Call"이 선사하는 감동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동하다. 그의 후대 음반 몇 장이 간간히 1집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을 받는다 한들, <The College Dropout>이 우리의 마음 속에 좀 더 특별하게 남는 것은 최초라는 상징성에 걸맞는 감동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연속적인 좌절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아직까지 <Vultures>에 대한 기대감을 간직하는 연유까지도.



The College Dropout

Kanye West

2004. 02. 10.

- | | | |
|---------------------|---------------------------|---------------------|
| 1 Intro | 9 Get Em High | 17 Lil Jimmy (Skit) |
| 2 We Don't Care | 10 Workout Plan | 18 Two Words |
| 3 Graduation Day | 11 The New Workout Plan | 19 Through the Wire |
| 4 All Falls Down | 12 Slow Jamz | 20 Family Business |
| 5 I'll Fly Away | 13 Breathe In Breathe Out | 21 Last Call |
| 6 Spaceship | 14 School Spirit (Skit 1) | 22 Heavy Hitters |
| 7 Jesus Walks | 15 School Spirit | |
| 8 Never Let Me Down | 16 School Spirit (Skit 2) | |

Featured

FEATURED

THE GOLDEN ERA WAS HERE

VOL. 1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VERSE OF...??
최고의 피쳐링 벌스들 VOL. 2

CRAIG
MACK

project:funk da world

Feat. Ma Maull, Puhdym
CHUN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VERSE OF...?? VOL.2

by 온암

최고의 피쳐링 벌스들 VOL. 2



THE BEST GUEST VERSE OF... **KENDRICK LAMAR**

**BIG SEAN
CONTROL**

Kendrick Lamar가 그의 최고 주가를 기록할 때 남긴 가공할 피쳐링 벌스들은 두 손에 다 세기 어려운 정도이다. 물론 그 중 랩의 수준으로나, 상징성으로나 최고봉은 역시 "Control"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수의 툰으로 동세대의 래퍼들에 대한 대대적인 도발을 선포한 그의 벌스는 분명 힙합 역사상 세 손가락에 꼽힐 최고의 피쳐링 벌스였다.

신예 시절부터 이미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래퍼들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Killer Mike는 그 중 하나이다. Dungeon Family의 일원으로서 남부의 신인이었던 그는 OutKast가 그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최선을 다했다. 특히 "Flip Flop Rock"에서는 Jay-Z 마저 능가했을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래퍼인지 짐작이 가는가?



THE BEST GUEST VERSE OF... **KILLER MIKE**

**OUTKAST
FLIP FLOP ROCK**



전설적인 DJ Premier의 비트 위에 오른 Rakim, Kanye West, Nas, 하나 같이 힙합 역사에 손꼽힐 위대한 아티스트이지만 최고의 벌스는 대선배인 KRS-One에게 돌아갔다. Preemo의 강력한 드럼셋과 KRS-One의 두터운 발성은 그 어떤 DJ-MC의 조합보다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여타 실력자들이 그렇듯이, Lil Wayne은 피쳐링 단위로 최고의 활약을 보인 래퍼였다. 래퍼로선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으나, 아티스트로서는 아직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 그를 왕좌에 옹립한 벌스는 "We Takin Over"의 벌스였다. 남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트랙에서 Wayne은 마지막을 장식하며 짐승 같은 랩으로 비트를 완전히 씹어먹었다.



PRhyme의 2014년 셀프 타이틀 작품은 골든 에라의 힙합을 그대로 재현한 수작이었다. 본 앨범도 충분히 좋으나, 디렉스 버전엔 최고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중 "Mode II"에서 Logic은 당시 부상하는 신예로서 그의 주특기인 속사포 랩을 낭겼고, 믿을 수 없이 긴 그의 호흡에 청자들은 하나 같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Lupe Fiasco가 정식으로 채 데뷔하기도 전, 그를 세상에 알린 곡은 시카고 동향 선배였던 Kanye West의 "Touch The Sky"였다. Just Blaze의 비트는 듣는 이를 승리감에 도취시키고, Kanye가 그의 성공 신화를 찬미하는 가운데 Lupe는 부드럽게 입장해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를 남겼다.



THE BEST GUEST VERSE OF...
METHOD MAN

GZA
SHADOWBOXIN'

힙합 최고의 작가였던 MF DOOM은 여러 시대와 여러 장르를 오가며 그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가 쇼의 조명을 온전히 그에게 집중시킨 순간은 많으나, 등장한 것만으로 전율을 준 벌스는 "Belize"밖에 없었다. 이미 고인이 된 지 2년째, Danger Mouse의 영적인 비트로 저승에서 소환된 DOOM은 그의 팬들에게 악당의 이름은 영원하다 선포했다.

혹과 벌스, 모든 방면에서 Method Man은 타고난 톤으로 언제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왔다.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쫀득한 래핑을 이어간 그의 경력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벌스들이 몇몇 있으나, 그럼에도 역시 "Shadowboxin'"의 아성을 넘긴 어려운 법이다. 침멍크 소울의 프로토타입에서 전개하는 그의 플로우는 뉴진하기 그지 없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MF DOOM

DANGER MOUSE & BLACK THOUGHT
BELIZE

THE BEST GUEST VERSE OF...
NAS

RAEKWON
VERBAL INTERCOURSE

많은 MC들이 입 모아 말하듯이, Pharoahe Monch는 그 압도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랩 팬들에 의해 충분히 거론되지 않는 래퍼이다. 하지만 그를 아직 청취하지 않은 이들조차 Mos Def의 "Oh No"에서 그가 벌인 경이로운 랩 퍼포먼스를 목도한다면, 장담컨대 열린 입을 닫을 방법을 강구하지조차 못할 것이다.

Nas의 라임이 여타 래퍼들과 어떻게 차별화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Raekwon의 1995년 곡 "Verbal Intercourse"를 필청하라. 후속한 Raekwon과 Ghostface Killah의 벌스조차도 초라하게 들리게 만들 정도로 걸출했던 그의 벌스는 운율적으로 믿을 수 없이 완벽했고, 문학적인 청자를 몰입시키는 자성을 지니고 있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PHAROAHE MONCH

MOS DEF
OH NO



Pusha T의 랩 스타일은 특별히 빠르거나, 현란하거나, 혹은 특이한 목소리를 앞세우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랩의 기본에 집중해 그 수준을 다른 경지로 끌어올렸다. 날카로운 랩 톤과 정교한 라임 배치로 플로우의 탄력성을 극대화시키는 크랙 앤 라의 랩은 Madlib의 "Palmolive" 비트에서 모든 조명을 온전히 그에게 집중시켰다.

Nicki Minaj의 스타일에 불호 의견을 표하는 이라도, 그녀가 "Monster"에서 최고의 벌스를 남겼다는 사실만큼은 논리정연히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곡의 테마인 '괴물'에 완전히 부합해, 얼터 에고를 오가는 톤 조절로 이중인격적 랩을 시도한 Nicki는 그 순간 실력만으로도 가장 핫한 루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Rick Ross가 최고의 래퍼로 언급되는 인물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Devil In A New Dress"의 광채 속에서 그는 한 순간 최고의 래퍼였다. Mike Dean의 강렬한 일렉트릭 기타 독주 후 더 확장된 비트에 입장한 Rick은 부유한 황제의 목소리로 그의 현 성공을 찬양하며 힙합 역사상 최고의 걸작, 그 하이라이트 자체에 자리 매김했다.

최근 '뮤비에서 눈 안 깜박이는 칸예 짤'로 유명해진 Busta Rhymes의 "Thank You"에서 정작 사람들의 시선을 앗아간 장본인은 Q-Tip이었다. 평소 특유의 나른한 랩으로 유명했던 Tip은 Kanye West의 ATCQ 타입 비트에서 Busta Rhymes의 존재감을 지워버릴 정도로 경이로운 무호흡 플로우를 구사했다.





THE BEST GUEST VERSE OF...
SLICK RICK

DJ PREMIER
THE ROOT OF ALL

Kanye West가 비트메이커로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의의를 가진 곡, "This Can't Be Life"는 게토의 서정성을 지닌 곡이었다. Jay-Z와 Beanie Segal 모두 수준급의 벌스를 남겼으나, 백미는 Scarface였다. 곡에 참여하기 며칠 전 발생한 비극적인 실화를 감정적으로 꾹꾹 눌러담은 그의 랩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80년대에 등장한 래퍼 중 Slick Rick 만큼이나 촌스럽지 않은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의 랩은 애당초 너무나도 부드러웠기에, 시대감각 자체에서 빗겨 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DJ Premier의 "The Root of All"에서 그의 실력이 새삼 어느 수준이었는지 특특히 체감할 수 있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SCARFACE

JAY-Z
THIS CAN'T BE LIFE



THE BEST GUEST VERSE OF...
THE NOTORIOUS B.I.G.

CRAIG MACK
FLAVA IN YA EAR RE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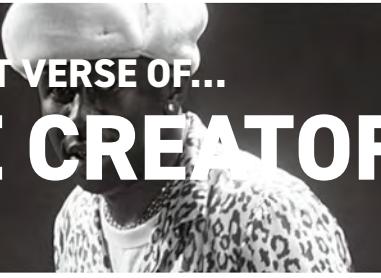
랩 스킬이 훌륭한 래퍼를 논할 때 Travis Scott은 자주 언급되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피쳐링은 대체로 호평받는 편인데, 그가 랩 스킬이 아닌 분위기로 승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Without Warning>의 오프닝 "Ghostface Killers"에서 그의 등장은 Metro Boomin 비트 특유의 어두운 공간감을 백분 증폭시켰다.

Easy Mo Bee가 프로듀싱한 "Flava In Ya Ear Remix"는 동부 힙합 역사상 최고의 단체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 트랙이다. 곡의 주인인 Craig Mack부터 LL Cool J, Busta Rhyme까지 쟁쟁한 래퍼들이 참여했음에도, 당시 신예였던 Biggie는 초장부터 무게감이 다른 랩 실력을 보여주며 향후 그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시켰다.



THE BEST GUEST VERSE OF...
TRAVIS SCOTT

21 SAVAGE, OFFSET & METRO BOOMIN
GHOSTFACE KILLERS



THE BEST GUEST VERSE OF... TYLER, THE CREATOR

PHARRELL WILLIAMS
CASH IN CASH OUT

비슷한 위상으로 평가받는 Kendrick이나 Cole에 비하면 순수 랩 실력은 다소 밀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Tyler가 훌륭한 랩 퍼포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랩 실력이 나날이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는 래퍼로서 고평가될 여지가 다분하다. Pharrell의 비트 위 Tyler의 거침없는 래핑만 들어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Westside Gunn은 버팔로의 언더 그라운드에 시작해서 드럼리스 유행을 메인스트림까지 전파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그에게 메인스트림의 상징과 같은 Travis Scott의 호출은 자긍심을 고취시켰을 것이다. The Alchemist의 비트 위 Westside Gunn은 특유의 하이톤으로 등장하며 앨범 내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WESTSIDE GUNN

Travis Scott
LOST FOREVER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VERSE OF...??



나는 여지껏 크레이그 맥(Craig Mack)만큼 만사 될 대로 되란 듯 시니컬하게 랩하는 가수를 본 적이 없다. 아마 그런 태도 또한 그가 내세운 반항아적 에고의 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밸을 수 있는 최대치의 자아도 취성 언사들을 덤덤히 흘려뱉고는 재빠르게 흑과 벌스의 변방으로 움직인다. 간단명료하지만 극적으로 리듬감 넘치고, 그 무엇보다 무례하지만 기묘한 매력이 물어나오는 스타일이다. 그래서인지 맥 특유의 이러한— 평크 정신이 도발적으로 꽂 핀 10대의 MC EZ 시절 가사들을 듣자면 나는 만면에 우스운 기분부터 든다. '내 짜는 랩으로 너희들을 무릎꿇리지' 같은 가사에 담긴 소년스런 허세

와 미숙함이 민망스럽고, 있는 힘껏 '멋스러운' 어휘를 구사하려는 그의 태도가 지극히 소년스러운 까닭이다. 헌데 1994년에 발표된 맥의 데뷔앨범 <Project: funk da world>에서 다시 그를 조우하게 된다면 앨범을 듣는 그 누구라도 그의 스타일이 확연히 정돈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Bad Boy Records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맥의 랩은, 이 앨범에서, 그 무엇보다도 정제된 시니컬함으로 청자를 기묘한 매력의 수렁에 빠뜨린다.

크레이그 맥은 젊은 시절의 마크 월버그를 닮았다. 특유의 외모부터가 우스우리만치 비슷하지만, 그 혼 내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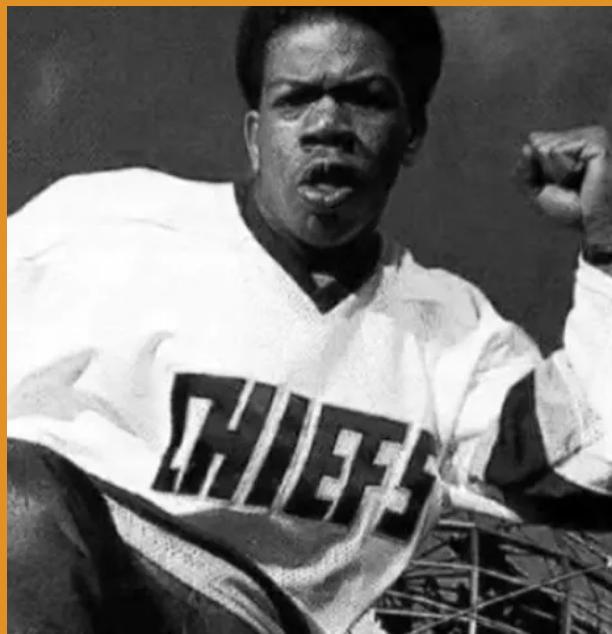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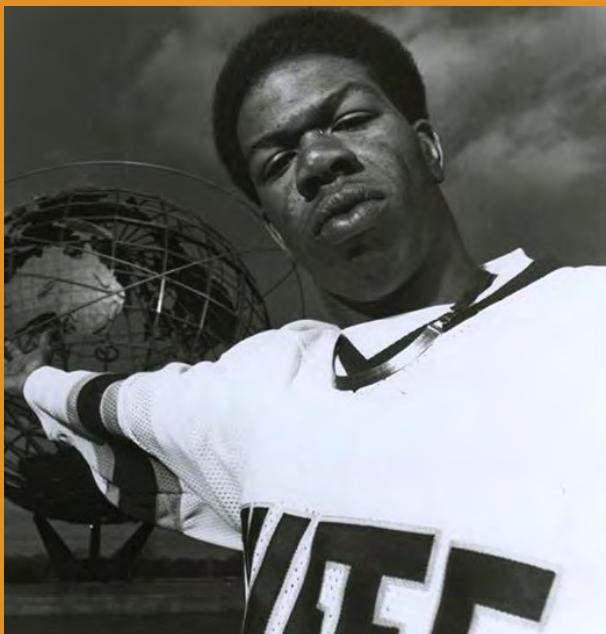
침잠된 일대 반항아적 특질이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들은 시대의 주류를 기피하며 얻어낸 언더독적 광휘를 소수의 작품에 맹렬히 뱉어내곤, 절정의 뒤안길로 급강하했다. 월버그는 <디파티드>와 <부기 나이트>를 촬영한 후 철저한 상업주의 노선을 타다가 희미해졌고, 맥은 <Project: funk da world> 이후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기독교 사업을 하다 사망했다. 커리어의 상당 기간을 암울하게 보낸 이들의, 요컨대 반항아적 도그마가 가리키는 한 가지의 의제라면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어떤 호연과 훌륭한 벌스를 직조해냈다 한들, 그들의 반항적 이데아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실패를 야기해왔던 것이다. 반항아는 천재들이 넘쳐나는 예술의 경합장에서 결코 분야의 제왕이 될 수 없었고, 맥 또한 본인의 행보를 통해 그를 증명한 또 하나의 별이 되었다. 결국 크레이그 맥 본인은 채 쉰 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앨범은 단 한 장만이 대중의 곁에 남아 미약하게 그를 추억하고 있다. 마치 한 마디의 혈기 넘치는 작별인사처럼.

그러나 힙합사가 남긴 그의 기구한 운명과 다르게 <Project: funk da world>는 심도 높게 도발적이고 다각도로 쾌활한 앨범이다. 앨범을 전개하면서, 맥은 특유의 여유 넘치고 무념무상한 어투로 자신이 얼마나 '쩌는' 랩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일대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물론 그 여정엔 Bad Boy Records의 수장

Diddy와 프로듀서 Easy Mo Bee 역시 함께 했다. 이들이 제조한 소위— 휘황찬란하고 쫀득한 펑키 리듬은 앨범의 등대로써 줄곧 맥의 래핑을 착실히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맥이 랩을 한다.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골든에라의 탕아가 출사표를 던진다. 우리의 자질구레한 세포 마디마디마다 너른 리듬의 래핑이 날아와 파열된다. 거기엔 아우성치는 청년기의 반항 정신이 있었고, 주류 세계에서 분화하려는 평크적 탈립성이 있었다. 그리고 크레이그 맥 그 자신이 존재했다. 자의식과 반항으로 가득 찬 앨범의 프로덕션 사이에서, 맥은 현란하거나 기술적인 플로우보다는 한껏 소년미를 뿐는 래핑을 선보였다. '내가 이렇게 랩하면 어쩔건데?'라는 기운을 단전에 띄운 채로— 밑도 끝도없이 레이 백과 라이밍을 흘려보내는 그의 태도는 문자 그대로 시니컬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변칙성과 반항적 이디엄을 모두 갖춘, 크레이그만의 오만방자한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앨범의 포문을 여는 'Get Down'이나 전대미문의 불뱀 히트를 이끌어낸 'Flava In Ya Ear' 등으로 진입하면서 청자가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이 앨범의 오만방자한 랩이 작품의 전반적 톤앤매너와 꽤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한껏 어깨를 추켜올린 모습으로, 건들리거리듯 랩을 뱉는 맥의 플로우에서는 드높은 자존감과 강자다운 여유가 선연히 드러난다. 결코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의 자아도취적 가사들이 쉬이 납득가는 이유도 그러한





앨범의 전반적 방향성에 있을 것이다. 맥은 시적이며 의식에 가득 찬 컨셔스나 폴리티컬 랩은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거만하고 폭력적인 자기자랑을 늘어놓으며 앨범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러한 얼개들이 총체적으로 침윤한 결과값으로써, 그 누구보다 야만적이며 여성편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멋이 나는 랩스타의 언사가 한갓진 문장 구조들 사이에서 탄생하게 된다. 현데 MC EZ 때만큼 경망스러울지언정 서툴진 않고, 도덕적으로 어긋나있을지언정 어설프지는 않은 짜임이다. 청소년 시절의 맥이 청자에게 선사했던, 아슬아슬한 민망스러움이 <Project: funk da world>의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에 있어 묘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아마 그러한 쾌감이야말로 그의 건방진 성장기를 운위하는 데에 핵심적인 저변이 될 것이다. 맥의 스타일은 더욱 거칠고 양아치스러워졌지만 그를 표구하는 방식은 깔끔해졌고, 그의 래핑은 이전처럼 변칙적이며 제멋대로이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막무가내로 내뱉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청자가 가지게 될 의문은 단 하나만이 남게 된다. 이 앨범은 대체 왜 빛을 보지 못했는가. 그 명료하고 되뇌기 쉬운 질문이야말로 마치 숙명적인 적수처럼, 크레이그 맥이라는 인간사의 변경에서부터 평생 그를 옥죄어왔던 단 하나의 의제였을 것이다.

넓게 보면 1994년이라는 일대 대황금기에 앨범을 발표한 무수한 래퍼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흉은 같은 레이블 식구였던 The Notorious

B.I.G였다. 그리고 Puff Daddy. 그저 시대의 자양분을 지나치게, 아니 거의 전설적인 수준으로 탐닉할 줄 알았던 뚱보 소년의 재능과 <Ready To Die>라는, 그 이름만으로 힙합사에 제언을 던질만 한 앨범을 일주일 앞두고 맥의 앨범을 발표시킨 Diddy의 경악스러운 마케팅이 <Project: funk da world>를 흑암의 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맥은 그저 전대미문의 선공개 싱글이었던 'Flava In Ya Ear'의 흥행에 힘 입어 몇 TV 쇼에 얼굴을 비쳤고, 앨범이 나온 이후에는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쓸쓸히 사망했다. 등장하자마자 다신 없을 돌풍을 일으키며 맥의 흥행 기록을 손쉽게 갈아치우고는, 단 한 점의 좌절도 실패도 없이 그야말로 절정에서 드라마틱하게 사망한 B.I.G의 죽음과는 크게 대비되는 결말이다. B.I.G은 총격에 당해 죽기 직전에 'The Hypnotize'의 성공에 힘 입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는 길이었고, 맥은 심부전으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스트코스트와 Bad Boy Records의 황금기를 알렸던 두 인물의 결말이 —그들이 힙합사에서 가지는 명망의 크기가 일정치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토록 다른 것을 본다는 건 다분히 슬픈 일이다. 2018년에 사망한 래퍼들을 논하고 되돌아보는 다수의 칼럼과 기사가 있었지만, 거기엔 XXXTENTACION과 Mac Miller의 이름밖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맥은 —참을 수 없이 불행하게도— 사망 소식마저 유명 래퍼들의 클라운에 밀리고 만 셈이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Project: funk da world>의 프로덕션에 맥 본인의 손길 또한 항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Easy Mo Bee가 꼼꼼히 조여놓은 전반적 틀 안에서, 'That Y'all', 'Real Raw', 'Welcome to 1994' 등의 랩송들이 맥의 주도적 프로덕션 하에 탄생했다. 이 곡들은 유달리 기술적인 풍취를 자아내지는 않지만, 퀸즈 유니스피어처럼 거대한 에고를 부동켜안은 맥의 이상향을 잘 드러내는 사운드 소스들로 이루어져있다. 신경을 긁는 스크래치 사운드와 폭력적으로 고막을 강타하는 드럼 라인 속에서 녹진한 크레이그의 보이스가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가 스스로 '멋져보이고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혼 일부를 새겨넣은 비

트들과 Easy Mo Bee가 쌓은 불懈 서사의 둔중한 총열 위에서, 맥은 트랙이 재생될 때마다 우주의 변경을 반항스럽게 항해하고 있다. 두 번 다신 주어지지 못할 황홀경의 무대를, 자신의 몸을 불사르도록 만끽하면서.



project: funk da world

CRAIG
MACK

1994. 09.20

- 1 Project: Funk Da World
- 2 Get Down
- 3 Making Moves with Puff
- 4 That Y'all
- 5 Flava in Ya Ear
- 6 Funk wit da Style
- 7 Judgement Day
- 8 Real Raw
- 9 Mainline
- 10 When God Comes
- 11 Welcome to 1994



by 45

트랩의 시초이면서 더티 사우스, 즉 대남부의 시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에 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크렁크(Crunk) 뮤직에 담겨 있다. 이전까지 남부 힙합은 다들 알다시피 '더티 사우스', 즉 보잘것없는 지저분한 음악으로 받아들여진 게 현실이다. 남부 힙합씬은 마이애미의 그룹 2 Live Crew에서 시작한 마이애미 베이스를 필두로 뱅어에 특화된 클럽 음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남부 힙합에 대한 인식은 그저 '마약과 섹스, 돈만 이야기하는 저질 장르'로써 받아들여졌고, 줄곧 무시를 당했다. 남부에도 Goodie

Mob과 Outkast라는 거물급 신인이 있었지만, Outkast가 1995년 Source Award 시상식에서 베스트 뉴 그룹을 수상하고 소감을 마쳤어도 관객석에서 남부에 대한 비난이 멈추질 않을 정도로 찬밥 신세가 현실이었다.



하지만 한 장르의 탄생이 이러한 양상을 뒤집어놓았다. 멤피스의 거물 Three 6 Mafia에서 출발하여 Lil Jon에 의해 창시된 장르 크렁크가 그 주인공이다. "Tear da Club Up"과 "Gette'm Crunk" 등의 트랙을 살펴보면 Three 6 Mafia가 처음 제시한 크렁크의 방법론을 살펴 볼 수 있다. 그간 관례처럼 물려받던 묵직하고 담백한 킥과 드럼 위주의 딱딱한 비트를 탈피하고, 그 자리를 주로 전자음악에 사용되는 TR-808 머신으로 대체했다. 기존의 일반적인 힙합 비트는 간혹 래퍼들을 다소 딱딱하고 일방적인 플로우와 랩에 가두곤 했다. 하지만 TR-808 머신과 신스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부드러운 신디사이저를 이용해 멜로디컬한 랩을 보여주고, 808 베이스를 이용해 정형화된 플로우와 랩을 거부함으로써 아티스트의 표현력을 극대화해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중독적인 흑의 활용이다.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은 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열광의 도가니로 인도하기에 충분했다. 지금껏 피처링 혹은 랩 실력으로 텐션을 유도하는 방식과 달랐다. 원초적인 미로 접근해 클럽 친화적인 힙합 사운드의 정점을 잘 보여준 특징이다.

멤피스의 거대한 파도를 직감한 남부 애틀랜타의 Lil Jon과 Lil Scrappy, Ying Yang Twins는 크렁크라는 장르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Three 6 Mafia의 것을 각자 취향에 맞게 바꿨다. 이들은 TR-808 머신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베이스보단 신스에 그 쓰임을 더 집중했다. 고음의 신디사이저음을 겹겹이 쌓아나가며 더 신나는 음악으로 바꿨고 단순한 패턴을 계속 리버브 하여 곡의 중독성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보수적인 힙합씬에 파격을 불러왔다. 시끄럽고 심하게 꺾어버린 베이스, 클랩 패턴, 업 다운 편차가 심한 멜로디 등의 일렉트로닉 장르의 사운드를 적극 차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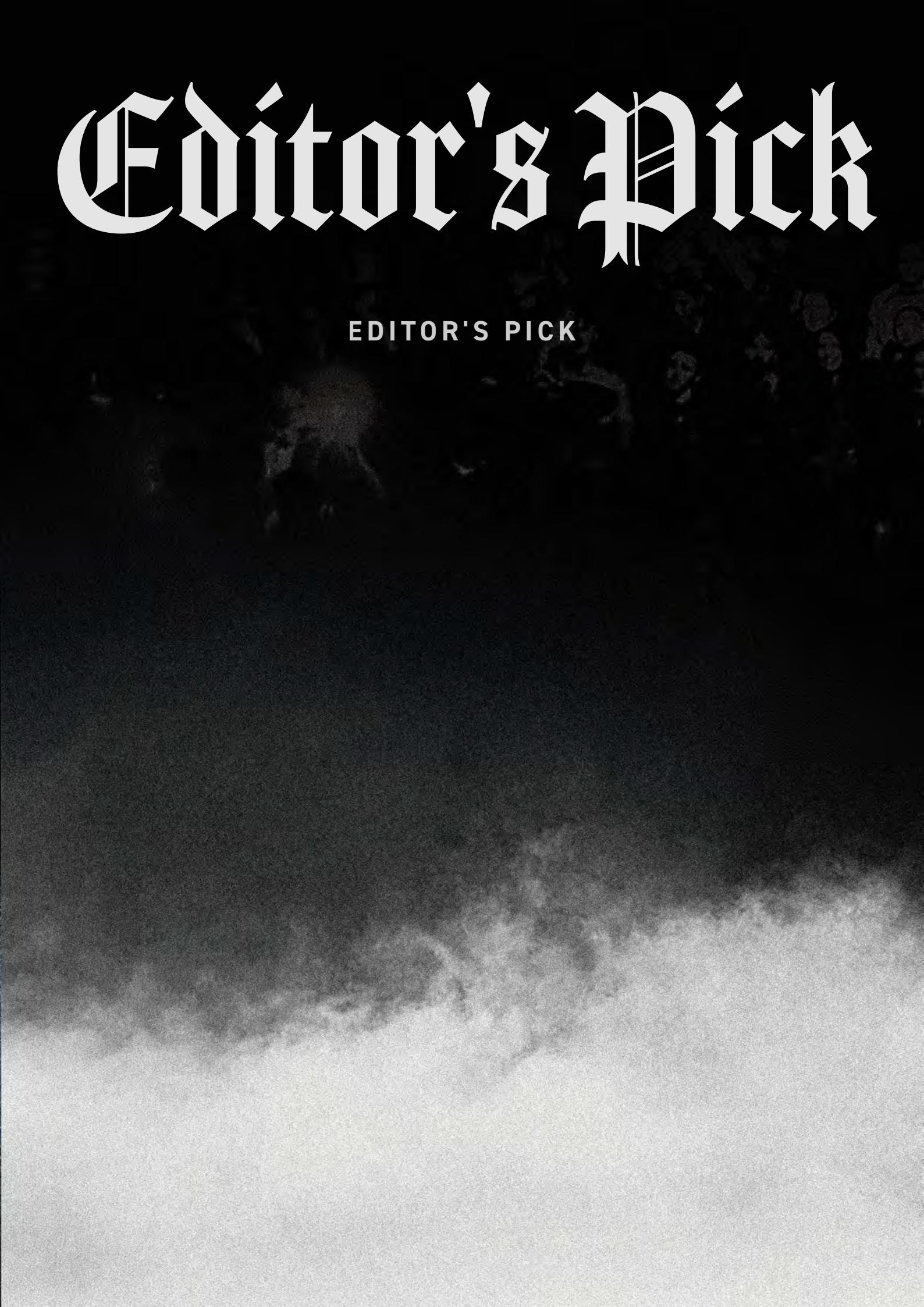
전세계 2000년대 초중반 클럽을 휩쓸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히트곡을 뽑자면 Lil Jon의 "Get Low", Usher의 "Yeah!", Lil Jon의 "Get Crunk", Ying Yang Twins의 Salt Shaker를 뽑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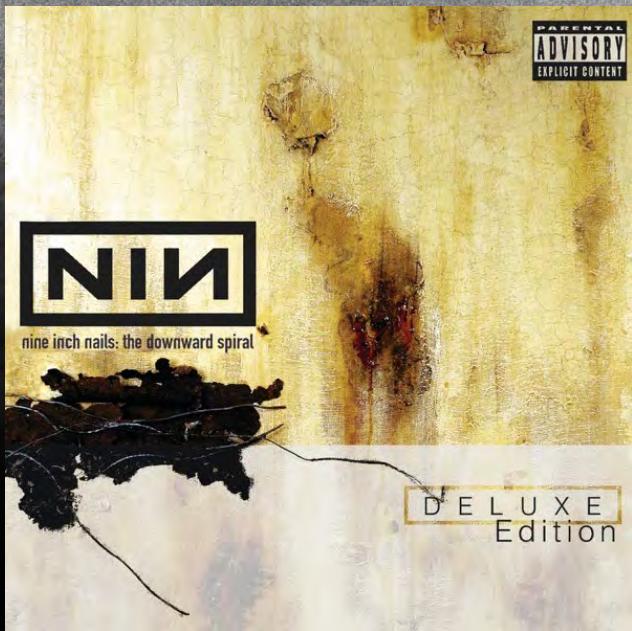
이외에도 크렁크의 새로운 하위 장르인 크렁크 알앤비가 떠올랐다. 이들의 주역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이다. 먼저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쇼에 출현한 어셔부터 크리스 브라운까지 90년대 뉴잭스윙 이후 흑인 알앤비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

크렁크(Crunk)의 어원은 흑인 커뮤니티 속 속어로 '광적으로 미치거나 술에 취해 들뜬 상태'에서 비롯된다. 이 장르에 딱 알맞은 이름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사운드 측면에서 흥미로운 장르지만 이외 부분에서는 처참했다. 틀에 박힌 가사, 클리셰적인 구성으로 인해 클럽 내에서 다른 장르들에게 빠르게 밀려나기 시작했다. 6년이었다. 빌 보드의 주류 장르와 비교해보면 크렁크의 쇠퇴는 비교적 빨랐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끝났으면 이 글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크렁크 뮤직은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지만 거대한 유작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는 트랩을 뽑을 수 있다. 초기 트랩이 크렁크를 바탕으로 TR-808과 각종 전자음악 장치로 성장한 건 맞지만, 크렁크는 신스의 쓰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트랩은 베이스 쓰임에 더 주목했다. 크렁크의 부족한 서사적 능력, 어두운 분위기를 보완하며 제2의 남부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Editor's Pick

EDITOR'S PICK





The Downward Spi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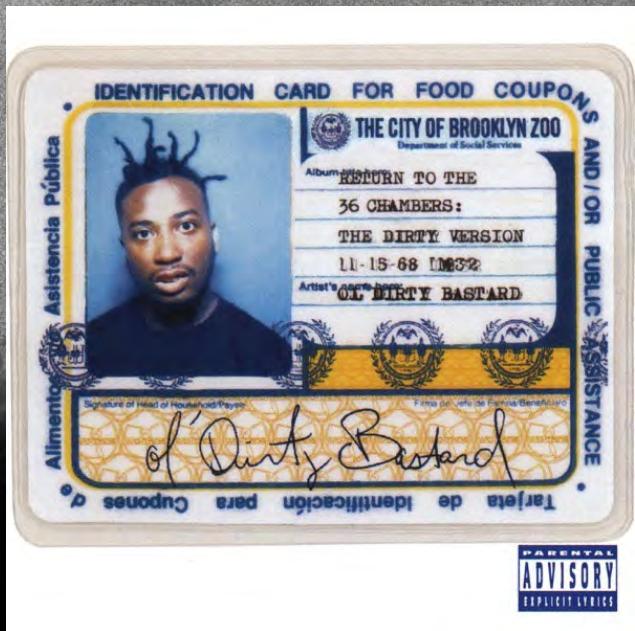
Nine Inch Nails

TRACK 1. Mr. Self Destruct / 2. Piggy / 3. Heresy / 4. March of the Pigs / 5. Closer / 6. Ruiner / 7. The Becoming / 8. I Do Not Want This

DATE 1994.03.08

EDITOR 앞날

작품명 하강 나선형, 즉 <The Downward Spiral>. 트렌트 레즈너(Trent Reznor)의 원맨 밴드인 나인 인치 네일스(Nine Inch Nails)의 명의로 만들어진 본 작품의 경이는 30주년이 지남에도 여전하게 특유의 침침한 색을 유지하고 있다. 인더 스트리얼 록이라는 명분 아래, 과하도록 어둡고 침침한 의식이 자리 잡은 본작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휘발되어 짙은 자 기혐오로 이어지고, 끝내 파국을 맞이하는 설정을 자랑한다. 차가운 금속음이 자리 잡은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광기로 점철된 파국의 현장뿐이다. 듣는 이에 따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구성이나, 삶의 고통을 신랄하게 예술로 승화하는 과정은 끔찍하도록 아름답다. 레즈너의 광기에 가까웠던 우울증과 무대의 제작 배경이 없었더라면 본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본작에 대한 찰나의 의구심조차 지워버리는 감상은 음악을 통한 주인공의 치열한 상황과 아픔이 피부 위로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놀랍다.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

O'l Dirty Bastard

TRACK 1. Intro / 2. Shimmy Shimmy Ya / 3. Baby C'mon / 4. Brooklyn Zoo / 5. Hippa to da Hoppa / 6. Raw Hide / 7. Damage / 8. Don't U Know / 9. The Stomp / 10. Goin' Down / 11. Drunk Game (Sweet Sugar Pie) / 12. Snakes / 13. Brooklyn Zoo II / 14. Protect Ya Neck II the Zoo / 15. Cuttin' Headz / 16. Dirty Dancin' / 17. Harlem World

DATE 1995.03.28

EDITOR ryuzimoto

93년 그룹 우탱클랜(Wu-Tang Clan)의 데뷔 앨범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 준 올 더티 바스타드(O'l Dirty Bastard). 그는 우탱의 프론트 맨인 Method Man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슈퍼스타였다. 원초적이면서 정력적인 플로우, 엉뚱하고 기괴한 면모, 이 모든 것은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본 RZA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 더티 바스타드가 종횡무진 뛰어놀 수 있는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라는 이름의 동물원을 선사해 주었다. 조금은 좁아 보일지 몰라도 이는 적절하다 못 해 완벽한 무대였다. RZA의 한층 더 농밀해진 프로덕션 아래 여과 없이 가미된 랩 서사가 더해져 압도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우탱클랜이라는 네이밍을 당시의 힙합씬에서 굳건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The Visualz Ant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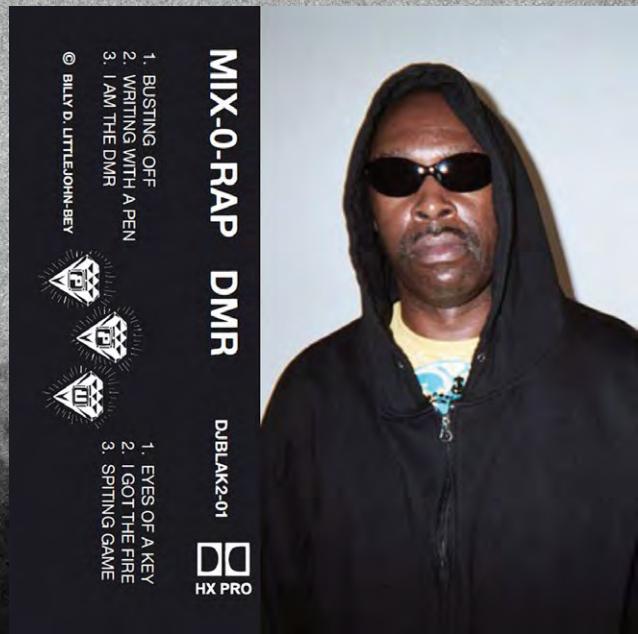
Siah, Yeshua daPoED

TRACK 1. The Visualz / 2. Gravity / 3. Glass Bottom Boat / 4. No Soles' Dopest Opus / 5. The Mystery / 6. A Day Like Any Other / 7. Pyrite / 8. Directions / 9. The Head Bop / 10. Victim Of My Own Imagination / 11. Stretch Armstrong And Bobbito 89.9 Siah Freestyle / 12. Hairy Bird Intro / 13. Hairy Bird Reprise / 14. The Cure for Stagnation / 15. Untitled / 16. Stretch Armstrong And Bobbito 89.9 Yeshua Freestyle / 17. Transatlantic / 18. Halftime Show With DJ Eclipse 89.1 Siah And Yeshua Freestyle / 19. GFYH Intro / 20. It's Good For Your Health / 21. A Day Like Any Other Remix (A Day Like No Other)

DATE 2008.04.08

EDITOR 공ZA

1996년, 뉴욕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두 백인, 중동 출신의 Siah와 콜롬비아계 미국인 Yeshua daPoED. 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누구보다 흑인음악스러웠고, 이를 고스란히 담은 데뷔 앨범 <The Visualz EP>를 발매하기에 이른다. 그 후 2008년, 여섯 곡이 수록된 데뷔 EP에 다수의 미공개곡이 더해진 확장판 <The Visualz Anthology>가 공개되었고, 이는 이 듀오가 얼마나 진한 뉴욕의 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금 알려준다. 하드밥 장르를 주름잡았던 재즈 음악가와 더불어 대중음악의 경계선에 놓여있던 여러 아티스트의 음악을 샘플로 사용하여 특유의 재지함을 살렸다. 이 사운드를 자유롭게 타고 흐르는 Siah와 Yeshua daPoED의 합은 마치 A Tribe Called Quest의 Q-Tip과 Phife Dawg을 보는 듯하다. 당신이 재즈 힙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듀오가 만든 재즈의 흔적을 좋아보는 게 어떨까.



Mix-O-Rap

DMR

TRACK 1. Busting Off / 2. Writing With A Pen / 3. I Am The DMR / 4. Eyes Of A Key / 5. I Got The Fire / 6. Spitting Game

DATE 2017.10.02

EDITOR SongChico

본작의 장르 Go-Go는 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후 침체 기를 겪었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이를 새로운 장르로 변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곤 했다. 앨범의 주인 Mix-O-Rap 역시 그 예시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다. 그는 Go-Go가 전성기에 있던 1984년에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2014년, Funk 레이블 PPU 아래서 앨범을 발매했다. 정신없는 퍼커션 위에서 Mix-O-Rap은 계속해서 짧은 랩을 뺄어 댄다. 그러면서 힙하우스, 익스페리멘탈 힙합, 아웃사이더 하우스 등 “요즘” 장르와 Go-Go를 적절히 섞어냈다. 여러 요소가 한 곳에 모였을땐, 떨어지는 음질마저 의도된 빈티지처럼 쿨하게 느껴졌다. 정체도 불분명한 아티스트의 이 작품은 과거의 유산과 최신의 사운드를 제법 그럴싸하게 한 곳에 뭉쳐 놓았으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Go-Go의 부흥과 연결되는 일은 없었다. 만약 이 앨범이 잘 팔렸다면 지금의 아프로비츠의 자리엔 어떤 장르가 있었을지 모르는 일 아닐까?



GINGER

BROCKHAMPTON

TRACK 1. NO HALO / 2. SUGAR / 3. BOY BYE / 4. HEAVEN BELONGS TO YOU / 5. ST. PERCY / 6. IF YOU PRAY RIGHT / 7. DEARLY DEPARTED / 8. I BEEN BORN AGAIN / 9. GINGER / 10. BIG BOY / 11. LOVE ME FOR LIFE / 12. VICTOR ROBERTS

DATE 2019.08.23

EDITOR BlackMatter

명반은 아니더라도 웬지 애정이 가는 앨범들이 있다. 이제는 해체한 보이그룹 BROCKHAMPTON의 <GINGER>가 그렇다. 대표작인 <SATURATION> 시리즈와는 상반된, 낯은 채도의 음악을 선보이는 정규 5집 <GINGER>는 사랑과 멤버들의 속마음, 그리고 퇴출된 멤버 아미어 반에 대한 뒷 이야기를 공유한다. 브록햄튼 커리어 최고의 파트라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닌 첫 세 트랙에서는 랩과 보컬의 적절한 혼용을 통해 청자를 흡입하고, “DEARLY DEPARTED”에서는 케빈과 맷, 둘 세 멤버의 개인적인 속내와 아미어 반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한다. “When somebody that you know throws you in the fire” 등의 라인에서 사용된 강한 어조는 아미어 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뚜렷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부드러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라인의 “GINGER”에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키스할 때 닿는 상대방의 썩은 치아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금은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무드의 앨범이지만, 어찌 보면 당시 브록햄튼의 상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I Told Them...

Burna Boy

TRACK 1. I Told Them / 2. Normal / 3. On Form / 4. Sittin' On Top Of The World / 5. Tested, Approved & Trusted / 6. Cheat On Me / 7. Virgil / 8. Big 7 / 9. Dey Play / 10. City Boys / 11. Giza / 12. 12 Jewels / 13. If I'm Lying / 14. Thanks / 15. Talibans II

DATE 2023.08.25

EDITOR 45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인 장르를 뽑아보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아프로비츠를 뽑을 것이다. 버나 보이(Burna Boy)는 올드 스쿨에 대한 리스펙과 UK 드릴, 댄스홀, 알앤비, 재즈 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프로비츠’라는 이름 아래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한다. 비로소 그의 노력의 결실은 아프로 퓨전이라는 아프로비츠보다 한 단계 앞선 장르를 선보이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점으로 인해 기존의 아프로비츠랑 달리 여러 장르를 융합하여 팝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독특한 박자와 창법으로 일부 리스너들이 낯설어 할 수 있는 부분은 높은 대중성의 팝과 결합하여 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노래에 담고 있는 평화와 사랑에 관련된 주제들은 그의 느슨한 사운드와 합쳐져 마치 그만의 레게를 구현해낸 듯 하다. 또 다른 거장 Wizkid가 알앤비와 아프로비츠를 접목했다면, 버나 보이는 더 폭넓은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글로벌 장르로써 발돋움하는 아프로비츠에 날개를 달아줬다.



New Editors

자카

안녕하세요. 가사해석을 진행하던 자카라고 합니다. 해석의 일환으로 KHL에 들어와 반년간 글은 쓰지 않고 다른 에디터분들의 노고를 지켜보기만 하였으나, 갑자기 어느날 무서운 형님들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달콤한 꼬드김으로 유혹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 어두컴컴한 곳에서 키보드를 두들기며 글을 써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던 제 삶은 도대체 어찌 되려나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Troye Sivan, \$uicideboy\$, Tyler The Creator, Mac Miller, Swans

좋아하는 앨범

Troye Sivan - Something To Give Each Other
Prince & The Revolution - Purple Rain
Kendrick Lamar - To Pimp A Butterfly

예리

슬기의 용안이 각막에 스며들자 전두엽이 따가웠다. 그녀가 떠나갈 적엔 열감이 가시고 공허한 적막이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셔츠 앞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꼭 눌렀다. 아직도 슬기에게 벽살을 잡힌 듯 각인당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눌러서 막지 않으면, 지금껏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 올린 둑이 갈라져 겉잡을 수 없는 벽차오름에 물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과열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가득 담은 풍선만큼이나 끝없이 상승 할 수 있다. 감정과 풍선의 공통점은 비가시권의 높이에서 제품에 폭발해버린다는 것. 그에 비하면 현실이란 그넷줄이나 위로 튀어오르는 공과 같이 얼마나 차갑고 무미건조 한지. 하지만 감정의 사슬을 탈피하며 이룩해낸 송배, 즉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탄의 신실한 산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실로 영롱한 빛을 뿜어낸다.

나는 일곱 개의 바다를 항해하기엔 너무 늦게 태어났고, 별에서 모험하기엔 너무 일찍 태어났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케이팝 아티스트 슬기의 전성기를 목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딱 알맞은 때였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Nirvana, Red Velvet, Pink Floyd, David Bowie, Björk

좋아하는 앨범

Nirvana - Nevermind
Red Velvet - Perfect Velvet - The 2nd Album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